

明代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朴炫局^{1, 2 *}·金基郁^{1, 2}·李泳錫^{1, 2}

The Med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diatrics in Myeong(明) Dynasty

Park Hyun-kuk^{1, 2 *}·Kim Ki-wook^{1, 2}·Yi Yeong-seok^{1, 2}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²Dongguk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yeong(明) Dynasty Period put together clinically various medical theory in Song(宋) Dynasty and Geum-Won(金元) age, organized medical system. They have been developed in theory, which thought of Byeonjeungronchi(辨證論治) more important, and clinical part which included diagnosis, therapy, prevention. In that age reactional medical thought was in fashion because of affect of Ihak(理學), therefore pediatrics have been affected from them.

Especially, looking at the symptom of Byeonjeungronchi doctors, Manjeon(萬全), Nobaeksa(魯伯嗣), Wangdaeryun(王大綸), Wanggeungdang(王肯堂), Nuyeong(樓英) had succeed to Jeoneul(錢乙)' the five viscera Byeonjeung(辨證) system.

Manjeon advocated Samyuyeosabujokron(三有餘四不足論) about Jangbu(臟腑) and organized the curative principle about Ojangheosil(五臟虛實).

Gupyeong(寇平), commented on diagnosis of five viscera and classification of disease of five viscera. Wangdaeryun in the close of Myeong Dynasty Age explained main pulse, pulse of illness in detail according to weakness or strength of five viscera, pathological or physiological features of five viscera and Saenggeuk(生克) relation of Ohaeng(五行) in the book of 『Yeongdongryuchwe(嬰童類萃)』.

Wanggeungdang and Nuyeong had organized system of argument which classified disease as a result of symptom of five viscera. 『Yugwajeungchijunseung(幼科證治準繩)』 and 『Uihakgangmok(醫學綱目)·Soabu(小兒部)』 had been written by this principle. Nobaeksa had arranged the principle of cure about five viscera and explained method of common use about each organ's disease.

Besides, Seolgi(薛己), Janggyeong-ak(張景岳), insisted about Myeongmun(命門) because he thought of Bisin(脾腎) of children and vigor by nature importance.

Seolgi had applied and used very well Bojung-ikgitang(補中益氣湯) based on Idongwon(李東垣)'s Biwiseol(脾胃說) and controled and helped spleen and stomach. At the same time, he took a serious view about supplementing children's Sin-gi(腎氣) according to so many spleen and stomach disease was fallen because they couldn't make warm the spirit of Jungju(中州), result of weakening Hwa(火) of Myeongmun. Also Janggyeong-ak took a serious view strengthen of Bisin, so he assorted and used Insam(人蔘) and Buja(附子) to supplement children's weaken energy in kidney Jeonggi(精氣).

Key Words : pediatrics, Myeong(明) dynasty, medical practitioner(醫家), Byeonjeungronchi(辨證論治), smallpox and measles(痘疹)

I. 序 論

明代의 의학은 宋代 및 金元代에 발달한 의학이론을 임상과 종합하고 절충시킴으로써 비교적 체계적이고 완비된 의학체계가 형성되어 의학 각 방면에서 모두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당시 시대적인 특징은 송대 理學의 영향으로 ‘儒醫’를 자처하는 의가들이 『內經』, 『傷寒論』, 『神農本草經』, 『金匱要略』 등을 經典으로 받들어 “理必『內經』, 法必仲景, 藥必『本經』”이라 하여 經典에 대한 비평을 배척하였다. 한편으로는 金元醫學의 영향으로明代에도 각파 사이에 논쟁이 극렬하였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薛己, 趙獻可, 張介賓 등으로 대표되는 溫補派와 王履, 戴思恭, 汪機 등으로 대표되는 養陰派와의 논쟁이 있었으며, 命門과 相火에 관한 논쟁, 三焦에 관한 논쟁, 『內經』과 『傷寒論』의 주해와 정리에 관한 논쟁 등이 있었다. 이는 各家의 저작에 항상 반영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의학이론의 발전 및 체계화에 촉진작용을 하였다.¹⁾

또한 『六科準繩』, 『景岳全書』, 『醫學正傳』 등 叢書와 類書가 출현하였고, 임상적으로도 ‘脈證合參’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辨證論治의 경향이 보다 뚜렷해졌으며, 서양의학이 도입되어 새로운 의학사상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등明代에는 의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소아과²⁾ 또한 이러한

학술적 배경 하에 이론과 임상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³⁾ 따라서 논자는明代 소아과학에 관하여 발전개황, 痘疹學의 발전, 醫家와 醫著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소아과의 발전개황

1) 醫事制度

明代의 醫事制度는 太醫院 산하 ‘大方脈, 小方脈, 婦人, 瘡瘍, 針灸, 眼, 齒, 接骨, 傷寒, 咽喉, 金鏃, 按摩, 祝由’의 13개과로 분류되었고 그 중 ‘小方脈’이 소아과에 해당하는데 그 명칭은 宋代, 金元대를 거쳐 그대로 계승되었다.

明代 소아과의 교육 상황을 살펴보면 역시 ‘家傳’ 및 ‘師徒’ 사이의 傳授가 위주였고, 太醫院에서는 醫家의 자제들을 우선 선별한 ‘醫丁’과 전국 각지의 醫官이나 醫士 가운데 선별한 자들 가운데 太醫院 고시를 거쳐 합격한 자를 등용하였다. 교육과정을 보면 소아과와 관련된 전문교육 외에 공통과목이라 할 수 있는 『素問』, 『難經』, 『神農本草經』, 『脈經』, 『脈訣』 등을 필수적으로 학습하였다.

2) 소아 생리 및 병리에 대한 인식

이 시기의 소아 생리·병리에 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萬全은 丹溪의 학술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肝常有餘, 脾常不足, 心只是有餘, 肺只是不足, 腎常虛”⁴⁾라 하여 소아의 ‘五臟有餘不足說’을 주장함으로써 錢乙로 부터 이어져온 臟腑辨證論治體系를 더욱

로 각종 소아질병에 대한 병인·병기 및 치료원칙이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속적인 연구임을 밝혀두며 장편의 지면을 할애해주신 편집위원회에 감사드린다.”

- 3)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9.
- 4) 萬全 著. 育嬰秘訣·五臟證治總論.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475.

* 교신저자 : 박현국.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E-mail : parkhg@dongguk.ac.kr. Tel 054-770-2370. 접수일(2008년 7월 9일), 수정일(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 1)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237-248.
- 2) 朴炫局, 金基郁, 金正浩. 金元代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13-26. 朴炫局, 金基郁, 李泳錫. 兩宋時期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2). pp.1-20. “兩宋時期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를 통하여, 宋代는 ‘小方脈’이 太醫院 산하 9개과 중의 하나로 설치됨으로써 소아과의 교육기구 및 교육체계가 정비되고 동시에 소아과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錢乙이 『小兒藥證直訣』을 편찬하여 소아과학의 辨證論治體系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金元代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를 통하여, 金元四大家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소아과 임상에서의 용약 및 治則을 확립 하였다.

張景岳은 “臟氣清靈，隨拔隨應，但能確得其本而撮取之，則一藥可愈”⁵⁾，“不知小兒柔嫩之體，氣血未堅，臟腑甚脆，略受傷殘，萎謝極易，一劑之謬尚不能堪，而況其甚乎”⁶⁾라 하여 소아의 臟腑가 ‘純正清靈’하여 성인에 비해 약물의 영향을 쉽게 받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약물의 운용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張景岳은 小兒 變蒸說의 3대 유파를 대표하는 明代 의가들 중의 하나인데 그 3대 유파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孫一奎를 대표로 하는 전통적인 生理派를 들 수 있다. 孫一奎 등은 소아 變蒸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임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赤水玄珠·小兒金鏡』에서 “所謂變蒸者，乃氣血按日交會鍛煉，使臟腑之精神志意魂魄遞長，靈覺漸生爾”⁷⁾라 하여 소아는 이러한 變蒸과정을 거쳐 정신적, 육체적인 성장을 이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寇平은 “一肝蒸呼爲尚書童子，二肺蒸魄 …… 三心蒸體舌 …… 四脈蒸精志 …… 五腎蒸烈精生骨髓，六耳蒸筋脈通流能行，七蒸蹠骨漸行，八蒸呼吸精神定 ……”⁸⁾이라 하여 錢乙의 장부적인 變蒸을 전발하고 보완하였고, 喬采는 『幼幼心裁』에서 “變蒸限於二歲”⁹⁾라 하여 變蒸의 연령 한계를 규정하였다.

둘째, 王鑾을 대표로 하는 變蒸病理說을 주장한 파이다. 王鑾 등은 “凡小兒之病，無有不因變蒸而得也。而不熱不驚或無他病候，是暗變者，多矣。此受胎氣壯實故也”¹⁰⁾라 하여 變蒸이 오히려 소아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는 張景岳을 대표로 하는 파로써 張景岳 등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주장, 즉 變蒸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라는 설과 반대로 병리적인 것이라는 설을 모두 부정하고 배척하였다.

3) 소아 四大證의 발회

虞搏은 『醫學正傳·小兒科』에서 “小方脈科，惟急慢驚風與夫痘等病最爲酷疾 …… 次則五疳吐瀉 …… 以上四證，各立篇目，其餘一切小疾 …… 各附于吐瀉之後”¹¹⁾라 하였고, 聶久吾는 『活幼心法』에서 “幼兒之病，自痘疹而外，若驚疳吐瀉等證，關係安危最重”¹²⁾이라 하여 대체로 ‘麻, 痘, 驚, 疳’ 4가지 병을 明代 소아과에서 가장 중시하여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驚’, ‘疳’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明代초기 驚風學說의 내용을 살펴보면 『永樂大典·醫藥集』에서 『簡易方』의 내용을 인용하여 “驚은 七情의 하나로써 古人들이 소아에 대해 論하면서 喜怒哀憂思恐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오직 驚만을 강조한 까닭은 小兒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氣脈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精神이 온전하지 않으며 하늘에서 稟賦받은 바도 混然一真하여 七情은 비록 갖추었다 하나 완전하지가 않고 오직 乳食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喜怒哀憂思恐은 心中에서 動하지만 오직 驚만은 外에서 들어오니 神氣가 혼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라도 驚觸된 바가 있게 되면 悸動不安하고 啼叫搗搗하게 되는 심각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니 …… 驚證은 藥石이 아니면 調節할 수 없다.”¹³⁾고 하여 小兒 驚證을 강조하였다. 驚風에 대한 치료법으로 ‘截風定搐，和胃助氣，定志凝神’을 해야 하며 그 치료 단계를 등급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로써 明代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된 驚風에 대

5)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82.
 6)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79.
 7) 孫一奎 撰. 赤水玄珠全集(卷25)·小兒水鏡·變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40.
 8) 寇平 著. 全幼心鑒(卷1)·變蒸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6.
 9) 寇平 著. 全幼心鑒(卷上)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61.
 10) 王鑾 撰. 幼科類萃(卷3)·變蒸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81.

11)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386.
 12) 聶尚恒 撰. 活幼心法(卷9)·幼兒雜病方論 續修四庫全書 10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598.
 13) 蕭源 外 5人 編輯. 永樂大典·醫藥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41. “驚者，七情中之一也。古人于小兒論中，不言喜怒哀憂思恐，而獨言驚者，小兒初生，氣脈未定，精神未全，天之所稟者，混然一真，七情雖具而未有愛着，但念乳食，餘無所知，喜怒哀憂思恐動于中，惟驚從外來，神氣無雜，一有所觸，悸動不安，啼叫搗搗 …… 驚之一證，非藥石則不能調”

한 학술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이후 明代 후기에 출간된 『嬰童類萃』에서는 驚風證의 치료를 24종으로 나누어 圖式化하고 매 驚證마다 四言七句의 詩로써 ‘병인, 증치, 진단, 치료’의 요점을 개관 설명함으로써 驚風학설에 대한 완성도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疳證에 대한 明代초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普濟方·嬰孩』에서는 瀉血及瀉痢. 手足腫, 肚大胸高骨出, 鼻爛血痢. 皮膚無顏色生瘡. 頭上生瘡, 發黃稀少. 頭焦, 鼻下生瘡. 肚腫有青筋, 齒宣蟲蝕. 肚腫吐乳. 齒宣鼻爛, 而合地臥, 鼻中肉出, 齒宣. 遍身生瘡, 多飲水, 皮膚如粟, 水穀不化. 肚脹口幹. 吃泥土與土灰炭石. 飲水, 揩眼怕明. 多寒熱, 臥不起. 口內生瘡, 不食乳. 赤白痢, 變無定. 驚生鵝鴨頰, 多渴, 常飲水不住. 發稀, 鼻內生瘡, 齒宣, 顏色不定’ 등 疳證을 24종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이전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 이후 明代의 萬全是 『幼科發揮』에서 “疳證은 小兒의 極病으로써 비록 五臟의 다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脾胃病일 따름이다. 幼科 諸書에서 疳을論하면서 頭緒는 매우 많지만 본받을 바가 없으니 取할 만한 것이 없다. 오직 錢氏만이 肥, 瘦, 冷, 熱 4가지로 나누어 이치에 가까우니 初病은 肥熱疳이고 久病은 瘦冷疳이 된다.”¹⁴⁾고 하여 疳證을 寒熱의 속성에 따라 총괄하여 설명함으로써 학술적 완성도를 높인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 소아 진단학의 제고

소아 진단분야에서는 기존의 望診과 切診이 더욱 중시되어 발전된 것 외에도 腹診과 같은 새로운 방법도 출현하였다.

望診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寇平은 『全幼心鑿』에서 “嬰兒는 面部의 五色을 관찰하여 病源을 알 수 있다. 人身의 五體 가운데 頭가 가장 중요하며, 頭 중에 서도 面이 중요하고, 面 중에서도 睛이 중요하니, 睛 中에 神이 있기 때문이다. 神이라는 것은 目中의 光

彩를 말한다.”¹⁵⁾고 하였고, 또한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目으로 上注하니 望診해서 目中의 神氣를 먼저 알아야 한다.”¹⁶⁾라고 하여 ‘眼中之神’을 관찰하는 것을 望診의 요체로 설명하였다. 方賢은 『奇效良方』에서 “一視兩眼精神, 二視聲音響大, 三前後頂凶, 四形貌, 五毛發 …… 凡視小兒神氣色脈, 無出於此”¹⁷⁾라고 하고 또한 더욱 강조하여 “五者不能全見, 但得兩目精神, 聲音響亮, 此可保其六七”¹⁸⁾이라 하여 소아 望診의 五法 중 眼神을 관찰하는 것을 望診에서 가장 중시하였다. 이 이외에 龔廷賢은 『壽世保元』에서 “小兒諸病, 但見兩眼無精光 …… 黑睛無運轉, 目睫無峰芒, 如魚眼貓眼之狀, 個個不治 …… 其有病篤而眼中神氣不脫者, 可以活”¹⁹⁾이라 하여 望診 중 ‘小兒眼神’에 대한 중요성을 천술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小兒指紋法에 대해 王大綸은 “當辨左手三紋, 病應心肝, 右手三紋, 病應肺脾”²⁰⁾라 하여 ‘風氣命’ 三關과 ‘寸關尺’ 三關을 연계시켜 진단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薛己, 楊仁齋, 寇平, 萬全’ 등 많은 의가들이 이 설을 따랐고, 明代 후기의 대표적 의가인 張景岳 등은 “脈從寅關起, 不至卯關者, 易治. 若連卯關者難治, 若寅侵卯, 卯侵過辰者, 十不救一”²¹⁾, “豈此一線之色, 果能辨悉如此, 最屬無稽, 無足憑也”²²⁾라 하여 이 설을 극구 반대함으로써 明代 후기에는 小兒指紋法의 중요도가 많이 쇠퇴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15) 寇平 著. 全幼心鑿(卷1)·論面部 續修四庫全書10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9. “嬰兒惟察其面部, 必有五色以知其病源, 人身五體, 以頭爲首, 首中有面, 面中有睛, 睛中有神, 神者, 目中光彩是也”
- 16) 寇平 著. 全幼心鑿(卷1)·論面部 續修四庫全書10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9. “五臟六腑之精氣皆上注於目, 望而知之, 當先以目中神氣爲驗”
- 17) 方賢 著. 奇效良方·小兒門.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439.
- 18) 方賢 著. 奇效良方·小兒門.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439.
- 19) 龔廷賢 撰. 壽世保元·看兒眼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 20) 王大綸. 嬰童類萃(卷上)·相手指訣.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 21)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81.
- 22)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81.

14) 萬全 著. 幼科發揮·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86. “疳證, 此小兒之極病也, 雖有五臟之不同, 其實皆脾胃病也. 幼科諸書論疳, 頭緒太多, 法無經驗, 無可取者, 惟錢氏分肥, 瘦, 冷, 熱四者, 庶爲近理. 而以初病者爲肥熱疳, 久病者爲瘦冷疳”

明代에 새롭게 나타난 소아 腹診에 관한 내용을 보면 明代 소아과의 대가인 秦昌遇는 『幼科金鍼』에서 小兒傷食을 진단할 때 “按之²³⁾則硬, 彈之則響, 其證是矣”²⁴⁾라 하였고, 食厥을 진단할 때는 “細細彈其腹, 如胸腹脹滿, 響如鼓者, 食厥也”²⁵⁾라 하여 腹診을 소아 진단영역에 도입했으며, 癩癖 등에 대해서도 “凡看法必令小兒對面, 醫以右手中指抵于腰頸, 以大指在脇下捏之, 即可見矣”²⁶⁾라 하여 腹診을 응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管樞는 『保赤全書』에서 “四診法 …… 一視形, 二察色, 三虎口, 四診脈”²⁷⁾라 하여 成人의 望聞問切 四診을 응용한 진단법과는 다른 소아 진단법을 설명하였는데 기존의 虎口三關脈을 위주로 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나타내었다.

5) 辨證論治의 제고

明代에는 辨證論治체계에 큰 발전이 있었다. 『論治原則, 治療방법, 구체적인 질병치료』의 세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치료원칙의 측면을 살펴보면 錢乙의 五臟辨證體系를 계승한 科와 ‘脾胃’를 중시한 科, ‘脾胃’를 중시한 科로 분류할 수 있다.

錢乙의 五臟辨證體系를 중시한 대표적인 醫家로는 ‘萬全, 魯伯嗣, 王大綸, 沈大治, 王肯堂, 樓英’ 등을 들 수 있다. 각 의가의 특징적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萬全是 臟腑의 ‘三有餘四不足論’을 제창하여 五臟虛實에 대한 治則을 확립하였고, 寇平은 『全幼心鑒』에서 ‘五臟標本, 面部五色之圖, 五臟病證形色總見面部, 分五臟面部病證, 五臟受病圖, 辨五臟受驚積冷熱形證圖’와 같이 五臟病의 진단과 질병의 五臟分類에 대해 논했고, 明末의 王大綸은 『嬰童類萃』에서 五臟

의 생리·병리적 특징, 五行의 生克관계, 五臟虛實에 따른 主脈·病脈 등을 상세히 천발하였다. 예를 들어 腎臟에 대해 “腎在天爲寒, 在地爲水, 在人爲腎, 在時爲冬, 肺金爲母, 肝木爲子, 克心火, 主骨, 主藏精志, 其聲呻, 其液唾, 其味鹹, 上應耳, 下應腰腎, 其色黑, 黑欲如漆光澤, 不欲如炭. 腎主寒, 寒則傷腎, 其病疝, 欲甚傷腎, 疝主黑陷, 濕氣盛則病, 而黃甚則逆 …… 腎病. 面黑恐欠, 手足寒厥, 腹痛滲瀉, 後重, 臍下動氣 …… 腎實: 腹脹體重, 少氣不言, 骨痛餐瀉, 小便少 …… 腎虛: 心懸如飢, 胸痛連脊, 厥逆, 洩多, 耳鳴 …… 腎絕: 反目直視, 狂言遺尿, 腰折骨枯 …… 冬腎之脈宜沈濡, 旺冬季七十二日 …… 賊脈緩而大, 危脈來如解索, 去如彈石, 無胃氣者死”²⁸⁾라 하였고 기타 다른 臟腑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辨證方法을 통해 용약을 결정하였다.

王肯堂, 樓英 등은 五臟의 증으로 질병을 분류하는 論治體系를 확립하였는데, 『幼科證治準繩』이나 『醫學綱目·小兒部』가 모두 이러한 체계로 成書되었다.

魯伯嗣도 치료용약의 측면에서 五臟治療의 강령을 세우고 각 臟의 병에 해당하는 論治大法 및 常用方劑를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錢乙의 五臟分證理論이 明代 소아과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아질병의 辨證에서 용약까지, 즉 소아과의 기초이론에서 임상에 걸쳐 전반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小兒 辨證에서 脾胃를 중시한 것은 일찍이 錢乙과 李東垣 모두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써 明代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러한 점이 중시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의가로는 萬全, 龔廷賢, 胡濙 등이 있다.

萬全是 『育嬰秘訣』과 『幼科發揮』 등에서 모두 「調理脾胃」專篇을 두고 臟腑辨證論治를 기초로 小兒脾胃에 대해 천발하였다. ‘脾常不足’이라는 생리·병리적 현상에서 출발하여 이에 따른 소아의 ‘發病, 治療, 護理’ 등 전면적인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龔廷賢 또한 『壽世保元·小兒科』와 『衛生易簡方·小兒』에서 「調理脾胃」專篇을 두고 小兒脾胃를 매우 중시

23) 腹部를 按하는 것을 말한다.

24)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金鍼.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64.

25)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金鍼.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65.

26)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金鍼.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65.

27)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保赤全書(卷一).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65.

28) 王大綸. 嬰童類萃(上卷)·五臟統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하여 천발하였다.

薛己와 張景岳은 소아의 脾胃를 중시한 경우로 脾胃에 대한 중시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元氣를 중시하여 命門에 대해 천발하였다. 薛氏는 李東垣의 脾胃說을 근거로 “小兒諸病은 우선 脾胃를 調補하여 근본을 견고하게 하면 諸病이 스스로 물러난다”²⁹⁾고 하여 補中益氣湯을 선용하였다. 동시에 대부분의 脾胃病이 命門의 火가 衰하여 中州의 氣를 溫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므로³⁰⁾ 소아 腎氣를 보완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張景岳 또한 “補脾不若補腎, 養陰所以濟陽”³¹⁾이라 하여 脾胃를 모두 補하는 것을 중시하였는데 “小兒於初生之時, 形體雖成而精氣未滿 …… 且精以至陰之液, 本於十二臟之生化”³²⁾라 하여 소아의 부족한 精氣를 보완하기 위해 人蔘이나 附子 등을 선용하였다.

치료방법적인 면에서 明代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기존의 藥物湯劑 외에 龔廷賢, 樓英은 ‘外治’, 王鑾, 王大論은 ‘灸法’, 錢大用은 ‘鍼’과 ‘灸’를 병용하는 방법으로 소아병의 치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구체적인 질병치료에 있어서 王鑾은 養血益陰의 차원에서 ‘小兒諸熱’을, 錢大用은 陽虛의 차원에서 ‘小兒咳嗽’를, 寇平立은 ‘健脾理氣’를 원칙으로 삼아 ‘小兒積證’ 치료에 학술적, 임상적 업적을 이루었다.

6) 소아과 醫案을 중시

소아과 醫案에 대하여 의사학적으로 『史記扁鵲倉公列傳』을 시작으로 六朝시기에 醫案에 대한 일부 기록이 있고, 宋代 錢乙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한 소아과 醫案이 형성되어 醫案과 醫論이 결합되게 되었다. 明代에 이르러 이러한 病案, 즉 醫案은 소아과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과에 관

련된 전문적 醫案이 증가되어 醫案의 격식이 확립되는 등 醫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달라졌다.

소아과 醫案에 대한 專集으로는 薛己의 『保嬰撮要』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를 보면 저자인 薛己가 그의 부친인 薛鎧의 醫論 뒤에 薛己 자신의 經驗案을 첨가함으로써 醫案과 醫論을 서로 연계시켰다. 또 明末인 1644년에 성서된 『兒科雜證治驗』은 『保嬰撮要』를 계승한 것으로 체례는 같지만 案論을 보다 많이 첨가하여 소아과 醫案이 174종에 달하고, 1567년 성서된 萬寧의 『萬氏醫貫』에는 ‘症驗’ 또는 ‘驗證’이라 하여 저자의 소아과 病案 127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1643년에 성서된 『寓意草』에는 ‘與門人議病式’이라는 구체적인 病案 형식이 완비되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항을 기재하였는데, 그 중 소아 驚風에 대한 2종의 病案이 수록되어 있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에서 사용된 ‘與門人議病式’이 이후 明末 소아과 病案 형식의 기본이 되었다.

- ① 一般情況: 年齡, 貫籍, 診療年月日
- ② 現病史: 起病日, 晝夜輕重, 寒熱, 飲食, 二便狀態. 服藥與否 등
- ③ 個人史: 患者의 形狀, 苦樂 등의 精神상태
- ④ 체격검사
- ⑤ 望: 體形의 肥瘦, 長短, 皮膚색택의 黑白 등
- ⑥ 聞: 聲音의 清濁, 長短 등
- ⑦ 切: 三部九候 脈象의 상태
- ⑧ 진단: 內傷, 外感, 不內外因 등의 病因 및 病名, 標本 등의 판단
- ⑨ 치료: 汗吐下 및 寒溫補瀉, 十方十劑, 方劑 및 加減 등에 관한 사항
- ⑩ 預後: 치료효과의 여부 및 치료시기의 判定 등

또한 醫學類書 가운데 小兒病案을 다룬 것으로는 江瓘의 『名醫類案』이 있다. 『名醫類案』은 江瓘이 『史記』부터 明代 嘉靖연간에 이르기까지 1600여 년간의 醫案들을 모아 수록한 醫案 전문서로 全書는 12卷 205門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권 12가 소아과 부문

29)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脾臟.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凡小兒諸病, 先當調補脾胃, 使根本堅固, 則諸病自退”
 30)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腎臟.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命門火衰, 不能溫蒸中州之氣”
 31)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1)·小兒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2.
 32)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2)·傳忠錄·小兒補腎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28.

으로 모두 31門으로 분류되어 있고 東垣, 丹溪, 薛己 등의 醫案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모든 病案마다 ‘姓名, 年齡, 體質, 症狀, 診斷, 治療’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病案의 특성에 따라 ‘脈, 證, 病因, 治療, 病機, 診斷의 요점, 藥의 특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2. 痘疹學의 발전

明代의 醫家들은 그 당시 극심하게 유행했던 痘疹을 치료하기 위해 前代부터 이어져 내려온 痘疹에 대한 임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明代에는 痘疹學 方面에 더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예를 들어 痘疹에 대한 專書만 해도 근 120여종에 달하고 痘疹만 전문으로 보는 의사나 世襲醫의 출현 등이 모두 그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痘疹學의 흥성

(1) 痘瘡

소아 痘瘡는 자주 발생하는 급성 유행성 질환으로 사망률 또한 매우 높아서 소아과뿐만 아니라 종합성 의사의 痘疹部에서도 매우 중시하여 다루고 있다. 明代 당시 痘瘡에 대한 전문서는 『痘治理辨』(1539年), 『博愛心鑒』(1525年), 『博集稀痘方論』(1577年), 『摘星樓治痘全書』(1619年), 『痘科類編釋意』(1628年)를 비롯해 20여종에 달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痘瘡에 대한 豫防, 痘原, 痘形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예방

『醫學正傳』에서는 三豆煎湯(赤小豆, 大黑豆, 綠豆, 甘草)을 내복하고 가루를 내어 초에 담근 후 外塗하여 痘瘡를 예방한다 하였다. 孫一奎는 稀痘仙方, 稀痘如神散 등의 방제를 사용하였고 1601년에 집성된 郭子章의 『博集稀痘方』에서는 稀痘法으로 痘瘡를 예방한다고 하였다.

(3) 痘原

『普慈秘要』에서는 “夫痘之來, 其原遠也. 始則種之以精毒, 既則成之以胎毒, 後則滋之以乳毒 …… 母不慎, 日食毒物, 則毒氣與血交變成乳而毒及赤孩, 名之曰乳毒 ……”³³⁾이라 하여 ‘精毒, 胎毒, 乳毒’을 痘疹의 病인으로 규정하였다.

(4) 痘形

『痘治理辨』에서는 ‘始出圖, 圓混圖, 漿行圖, 結痂圖, 倒靨圖, 陽毒圖, 疔毒圖’로 나누어 圖式化하여 각 그림마다 注를 달았고, 翁仲仁은 『幼科痘科金鏡合刻』에서 痘瘡를 ‘游蠶形, 燕窩形, 環珠形 ……’ 등 15종으로 분류하였다.

(5) 분류

痘瘡 분류의 대표적인 것으로 『痘疹博愛心監』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痘瘡를 ‘順, 逆, 險’의 三法圖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夫痘有順, 逆, 險, 三者古無有也. 愚意妄立三名, 何則. 順者, 吉之象也. 逆者, 凶之象也. 險者, 悔吝之象也. 治痘執此三者, 以觀形色, 驗吉凶, 將無時而不當矣”³⁴⁾라 하여 痘瘡의 ‘順, 逆, 險’에 따라 그 形象을 설명하였고, 또한 “治痘之要, 見順勿藥, 遇逆不治, 逢險急治, 治險至順即止, 此不易之法也”³⁵⁾라 하여 치료에 있어서도 痘瘡의 ‘順, 逆, 險症’에 따라 그 치료 원칙을 설명하였다.

(6) 진단

痘瘡의 善惡에 대한 감별은 ‘灌膿의 疔瘡, 膿色, 痘脚, 根窠, 수반 증상’ 등을 기초로 판단하였다. 痘瘡와 癩疹³⁶⁾의 감별법을 보면 “以竹紙作擦子蘸油, 熏熾預

33)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普慈秘要.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73.

34)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博愛心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73.

35)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博愛心監.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73.

36) 三木榮 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印刷株式會社. 1963. p.46. “癩疹은 唐이전의 醫書에도 그 명칭이 있었지만 독립된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宋代에 이르러 痘瘡와 癩疹이 조금씩 구별되어 지기 시작하여 明代에는 독립된 질환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痘瘡書에 併載 되어지고 明末清初에는 專書도 나오게 되었다.”

使房內窗門閉，令黑暗，將撚子點照，其左顴，有顴，中庭，各有何疹點，看兩顴宜以撚子在兩耳邊及鼻左右。看中庭在兩目角邊平照，看其皮中歷歷可指，是亦是紫是塊是點，曉然明白，若是麻疹則浮于皮外，肉內無根。若痘瘡，根在肉內極深，若當顴及中庭正照則黯而不見”³⁷⁾이라 하여 그 형상을 기준하여 감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치료

痘瘡의 치료는 두 가지 유파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分期에 따른 施治’를 주장한 과이고, 두 번째는 ‘始終 같은 치법’을 주장한 유파이다.

시종 같은 치법을 주장한 대표적인 의가로는 補益保元法을 주장한 魏直을 들 수 있다. 魏氏의 保元法은 李東垣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東垣의 ‘黃芪湯’을 본 딴 ‘保元湯’을 위주로 痘瘡를 치료하였다. ‘朱惠明, 聶久吾, 王肯堂, 薛己, 翁仲仁, 孫一奎, 萬全, 張景岳’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의가이고 의사학적으로 錢乙, 陳文中的의 유파와 함께 3대 유파에 해당된다.

分期에 따른 시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의가로는 翁仲仁을 들 수 있다. 翁氏는 ‘發熱, 見點, 出齊, 起脹, 貫膿, 漿滿, 收靨’으로 구분하여 痘瘡를 분기별로 분류하여 치료하였고, 朱一鱗 또한 이 방법을 따랐다. 『萬病回春』에서는 진일보시켜 ‘發熱, 初出, 出齊, 總泛, 行漿, 漿足, 回水, 收靨, 結痂, 還元’ 등 10기로 나누어 치료하였고, 孫一奎는 6일을 경계로 6일 이전에는 解毒을 위주로, 6일 이후에는 補托을 위주로 痘瘡를 치료하였다.

(8) 방제 및 醫案

痘瘡의 치료방제를 살펴보면 『摘星樓治痘全書』에는 456종, 『陳蔡二先生合並痘疹方』에는 117종이 수록되어 있고, 醫案은 『摘星樓治痘全書』에 111례, 『痘疹傳心錄』에 소아두창 357례, 부인두창 25례가 기재되어 있다. 明代에는 痘瘡의 유행이 극심하여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제와 醫案의 수량이 늘어났고 또한 이에 대한 연구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37)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74.

2) 麻疹

麻疹에 대한 지식이 明代에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의가들이 중시하였다. 痘瘡에 비해 인지도는 낮았지만 金元시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시되었다.

이 시기의 麻疹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孔弘擢의 『疹科』(1604年), 呂坤의 『疹科真傳』, 殷仲春의 『疹子心法』(1644年) 등이 있었다.

孔弘擢은 “其發也, 與痘相似. 其險, 比痘非輕”³⁸⁾이라 하였고, 張景岳은 『景岳全書』에 「痘疹詮」 專篇을 두고 “痘之變態多證而疹之收斂稍易. 然疹之甚者, 其勢凶危也不減於痘, 最爲可畏, 蓋疹毒痘毒本無異也”³⁹⁾이라 하여 麻疹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麻疹發熱五日, 腮下見疹, 或六日早時, 其疹出在兩頰下, 細細紅點, 晌午時, 兩手背并腰下及渾身, 密密俱有紅點. 七日普遍掀發, 其鼻中清涕不流, 噴嚏亦不行. 七日晚, 兩頰顏色漸淡 ……”⁴⁰⁾이라 하여 麻疹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치료방면에서도 孔弘擢은 發散을 위주로 하였고, 孫志宏은 發散과 解毒을 병행하고 滋陰養血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麻疹을 치료하였고, 張景岳은 麻疹을 眞陰不足의 영향으로 파악하여 滋陰補腎하는 치법을 쓰는 등 의가들의 다양한 치료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3. 醫家와 醫著

1) 『全幼心鑒』

明·寇平이 1468년 撰했다. 全書는 4권이고 1권, 2권은 醫論으로 醫者의 도리, 초생아와 소아의 진단법 및 관리법, 방제의 운용원칙이 기재되어 있고, 3권은 驚風證治, 4권은 ‘吐痢疳瘕’의 치료 및 ‘小兒明堂灸經’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寇平은 飲食失節을 소아질병의 중요 원인으로 파악하여 1권 「食忌」에서 “外護寒邪, 內節飲食, 審物順

38)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疹科·原疹賦.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75.

39)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3.

40)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504.

時, 何疾之有”⁴¹⁾, “人若能知其食性調而用之, 則倍勝於藥也, 善治病者不若善慎疾, 善治藥者不如善治食, 爲醫士者, 宜留意焉”⁴²⁾이라 하여 치병에 음식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棗: 棗味甘平無毒, 助人身十二經, 調和百藥, 去核入藥同煎. 不去, 令人煩悶”이라 하여 대추 등의 치료 작용을 강조하였다.

寇平의 용약법을 보면 소아 外感風寒의 치료에 ‘鼻塞, 鼻乾, 鼻涕清涕’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川芎을善用하여 ‘細辛散’(細辛, 防風, 川芎, 前胡, 人參, 甘草), ‘川芎膏’, ‘開關散’(香附, 川芎, 芥穗, 僵蠶, 細辛, 蔥白) 등을 이용하였고, 小兒咳嗽에는 人蔘을善用하여 熱한 경우는 石膏, 芍藥을 배오한 ‘清肺飲子’를, 虛寒한 경우에는 阿膠, 糯米를 배오한 ‘補肺阿膠散’을, 寒痰喘急한 경우에는 陳皮, 白朮을 가한 ‘人蔘寧肺散’을 사용하였으며, 積證 치료에는 健脾理氣를 원칙으로 삼아 木香, 神曲, 枳殼 등의 약물을 운용하여 치료하는 등 작자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살펴볼 수 있다.

2) 『嬰童百問』

『嬰童百問』은 魯伯嗣가 1506년(一說에는 15세기경)에 찬하였다.

全書는 모두 10권이고 각 권마다 10問씩 두어 모두 100問이 되므로 『嬰童百問』이라 명명하였다. 問答 형식으로 병인, 병리, 증후, 치료 등 각 방면에 걸쳐 100여 가지 소아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도 수록된 방제가 280여수에 달하며 풍부한 내용과 실용성을 갖추어 후대에 널리 유전되었다.

本書의 초반부에는 ‘初誕’, ‘護養法’, ‘噤風撮口臍風’, ‘脈法’, ‘變蒸’, ‘五臟所主’, ‘發搐’, ‘驚風’, 중반부에는 ‘發斑’, ‘麻證水痘’ 및 ‘瘡疹’ 등 소아 각과의 병증, 후반부에는 ‘備急方’, ‘方歌括’ 등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의 특징적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魯伯嗣는 錢乙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여 소아 五臟辨證을 중시하였고 이에 따라 魯氏 특유의 소아 五臟

治療大法을 창안하였다. 그는 五臟主證 및 허실을 구분한 다음 “肝病은 疏風理氣, 心病은 抑火鎮驚, 脾病은 溫中消導, 肺病은 降氣祛痰, 腎病은 補助眞元을 위주로 치료하는 것이 治法의 大要이다”⁴³⁾라 하였다. 이에 따라 소아과의 五臟病에 대한 치료법칙을 세우고 임상에 운용하였다. 예를 들어 肝病에는 大黃丸(大黃, 木香)으로 理氣시켜 骨蒸을 치료하고, 心病에는 瀉心散(黃蓮)으로 抑火清心하고, 脾病에는 益黃散(陳皮, 丁香, 訶子, 青皮, 甘草)으로 溫中·健脾·消導하고, 肺病에는 甘桔湯(甘草, 桔梗)으로 理氣化痰, 除風熱하였다.

또한 본서에 기재된 소아과 병증에 대한 기술을 보면 “發熱一二日而出水泡, 卽消者, 名爲水痘, 但用輕劑解之, 卽便痊可”⁴⁴⁾, “斷臍以後, 爲水淫風冷所乘, 風淫之氣入于臍而流傳於心脾, 遂令肚脹臍腫”⁴⁵⁾이라 하여 소아질병에 대한 魯氏의 세밀한 관찰을 엿볼 수 있고, “初生噤風, 撮口, 臍風, 三者一種病也 ……”⁴⁶⁾, “得之與大人無異, 所異治者, 兼驚而已 ……”⁴⁷⁾라 하여 病證에 대해 魯伯嗣가 체득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용약 운용의 예를 보면 수록된 대부분의 방제가 조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藥量이 적어 소아과 임상에 편리하게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諸氣痞悶, 腹脇疼痛’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枳殼桔梗湯은 ‘枳殼, 桔梗, 甘草’ 3味로 구성되어 있고, 小兒骨蒸肌瘦를 치료하는 青蒿散 역시 ‘青蒿, 烏梅, 甘草, 小麥’ 4味로 구성되어 있는 등 여기에 수록된 대부분의 방제들이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아의 臟腑가 清靈한 생리적 특성과 단순한 소아질병에 적합하도록 방제를 구성하였다.

43) 魯伯嗣 撰. 嬰童百問(卷1)·五臟病證. 上海. 上海書店. 1985. “治療之法, 大抵肝病以疏風理氣爲先, 心病以抑火鎮驚爲急. 脾病當溫中消導. 肺病宜降氣祛痰. 腎病則補助眞元. 斯得其治法之大要也”

44) 魯伯嗣 撰. 嬰童百問(卷10)·麻證水痘. 上海. 上海書店. 1985.

45) 魯伯嗣 撰. 嬰童百問(卷1)·禁風撮口臍風. 上海. 上海書店. 1985.

46) 魯伯嗣 撰. 嬰童百問(卷1)·禁風撮口臍風. 上海. 上海書店. 1985.

47) 魯伯嗣 撰. 嬰童百問(卷6)·傷寒正受傷寒夾驚. 上海. 上海書店. 1985.

41) 寇平 著. 全幼心鑿(卷1)·食忌. 續修四庫全書10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6.

42) 寇平 著. 全幼心鑿(卷1)·食忌. 續修四庫全書1010.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26.

3) 『幼科類萃』

명의 王鑾의 저술로 1503~1534년 사이에 成書되었다.

본서는 모두 28권이고 매권마다 질병을 강령으로 삼아 ‘脈證, 病因, 證治, 不治證, 諸方, 灸法’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내용은 書名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부분 제가의 ‘類萃’로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하였고 王氏 본인의 학술사상을 附記하였다.

진단에 있어서 王氏는 脈診을 가장 중시하여 병마다 『脈訣啓蒙』, 『脈經』 등을 인용하여 해당 脈象을 천술하였고, 치료에 있어서 소아 질병의 諸方 뒤에 대부분 灸法을 열거하여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灸治法을 함께 병용하였다.

이 밖에 王氏는 용약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새로운 용약법을 운용하였다. 예를 들어 下胎毒法의 운용에 王氏는 ‘黃連, 甘草, 朱砂’를 쓰는 古法이 “稟受가 怯弱한 소아들은 이와 같은 寒冷之劑를 禁해야 한다.”⁴⁸⁾고 주장하고 “欲下胎毒者只須用淡豆鼓煎濃汁, 與三五口, 其毒下, 又能助養脾氣也”⁴⁹⁾라 하여 王氏 자신이 창안한 방법을 썼다. 또한 諸熱의 치료에 “苦者以治五臟, 五臟屬陰而居於內, 辛者以治六腑, 六腑屬陽而在於外, 故內者治之, 外者發之, 又宜養血益陰, 其熱不治而自愈也”⁵⁰⁾라 하여 王氏 자신이 경험하여 얻은 바를 설명하였다.

4) 萬全

萬全은 소아과, 부인과, 痘科 등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明代 대표적인 의가이다. 소아과에 관련된 저작으로는 『幼科發揮』, 『育嬰家秘』, 『痘疹心法』, 『片玉心書』, 『幼科指南心法』, 『片玉痘疹』 등이 있다.

이들 의서에 수록된 내용과 여기에 나타난 萬全의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類萃(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86. “恐稟受怯弱之兒不能禁此寒冷之劑”
49)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類萃(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86.
50)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幼科類萃(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86.

(1) 萬全의 小兒科 저서

① 『幼科發揮』

全書는 4권이고 1권에는 소아생리, 진단 및 ‘肝經主病, 兼證, 所生病’ 등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고, 2권에는 急驚風證, 急驚風變證, 急驚風類證, 驚風後餘證 및 ‘心經主病, 兼證, 所生病’, 3권에는 ‘脾經主病, 兼證, 所生病’, 4권에는 癩, 疔, 痘病과 ‘肺, 腎經主病, 兼證, 所生病’ 및 五臟虛實補瀉之法, 五邪所致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② 『育嬰家秘』

全書는 4권으로 1권에는 育嬰法, 五臟證治 및 小兒壽夭, 形色, 脈息, 脈과 證治에 따른 辨證, 2권에는 胎疾, 變蒸 및 驚風諸症, 3권에는 小兒脾胃의 調理 및 吐, 瀉, 傷食 등의 脾胃病變, 4권에는 ‘黃疸, 夜啼’ 등 小兒雜病과 小兒五官病의 증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③ 『痘疹心法』

全書는 23권으로 痘疹의 發起, 병인, 진단, 치료 등에 관한 것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권은 原痘, 胎毒 등에 관한 것과 臟腑主證治, 六氣十二經所主證治 등이 기재되어 있고, 2권은 痘疹之氣運, 形色, 老嫩, 善惡, 3권은 發熱, 失血, 癢塌, 寒戰 등과 같은 痘疹兼證의 치료, 4권은 頭面, 頸項, 飲食 등에 따른 진단방법, 5권은 治痘要略 및 禁忌, 6권은 痘疹首尾不可下辨과 錢氏陳氏立法用藥異同辨 등 前人들의 辨論에 대한 고찰, 7권은 先哲格言, 8권은 질문사항⁵¹⁾, 9권은 治痘凡例, 10권, 11권에는 藥性主治 및 修煉法, 12권~21권은 治痘, 發熱證治, 出見症治, 起發症治, 成實症治, 收醫症治, 落痂症治, 痘後餘毒症治, 疹毒 및 妊女痘疹症 등에 대해 개괄하여 설명하였고, 22권, 23권은 古今經驗諸方 147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萬全의 대표적인 소아과 관련 의서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소아과 학술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萬全의 소아과 학술사상

① 審因論治

萬全은 소아질병을 치료할 때 병의 원인을 극히 중

51) 萬全의 痘疹에 대한 醫學思想이 八卷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시하였고, 이러한 병인을 파악하는데 陳無擇의 三因說을 확대 운용하여 소아에 적용시켰다.

萬氏의 소아과 특징적인 학술내용을 살펴보면 “丹疹瘡癰之類와 같이 胎毒이 원인인 것은 幼嬰解毒延齡丸, 溯源解毒湯과 같은 것으로 해독해야 하고, 胎稟不足으로 인한 解顛五軟之類와 같은 것은 地黃丸으로 치료한다. 外感風寒暑濕之氣가 원인인 경우는 外因이라 하고, 飲食寒熱이 원인인 경우는 內因, 客忤·傾跌湯火 등이 원인인 경우는 不內外因이라 한다. 外因은 發散해야 하고 內因은 消導, 不內外因은 증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⁵²⁾고 하여 소아 병인을 ‘胎毒, 胎稟不足’ 등이 포함된 선천적인 병인과 陳無擇의 內因, 外因, 不內外因 4가지로 분류하였다. “外因은 風寒暑濕之邪를 불문하고 ‘香蘇散에 紫蘇, 香附, 陳皮, 甘草를 가하거나’ 또는 ‘常山, 檳榔, 烏梅를 가하는’ 등의 처방으로 치료하고 …… 飲食不化로 인한 內因으로 痰이나 癰이 발생한 경우에는 ‘平胃散에 常山, 烏梅, 檳榔을 가하고’ …… 不內外因인 客忤中惡, 夢寐顛倒 등으로 癰이 발생하는 것을 邪癰이라 하여 四聖丸이나 家傳된 斬鬼丹 등으로 주치한다.”⁵³⁾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治則과 方藥을 확정지었음을 알 수 있다.

② 臟腑有餘不足說

朱丹溪는 일찍이 소아생리에 대해 ‘肝은 유여하기만 하고 脾는 不足하기만 하다.’는 설과 ‘腎은 不足하기만 하다.’는 설을 제창하였는데 萬氏는 이를 계승하여 ‘肝은 항상 유여하고 脾는 항상 부족하다.’⁵⁴⁾, “心은 항상 유여하지만 肺는 늘 부족하다.”⁵⁵⁾, “腎主

虛”⁵⁶⁾, “여기에서 有餘, 不足이라 한 것은 經에서 말한 虛實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⁵⁷⁾라 하여 이를 진실로 설명하였다.

소아의 ‘肝常有餘’에 대해서는 “如草木之萌 …… 眞氣方盛 …… 乃陽自然有餘也”⁵⁸⁾라 하였고, ‘脾常不足’에 대해서는 “兒之初生 …… 脾未用事, 其氣尙弱 …… 乃穀氣之自然不足”⁵⁹⁾하다고 하였고, ‘心常有餘’에 대해서는 “色見紅潤, 脈來大數者 …… 其兒易養”⁶⁰⁾이라 하였다. 병리적으로는 五臟의 유여,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소아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心肝有餘’로 인해 ‘驚風, 竄視’ 등이 발생하고, ‘脾胃不足’으로 ‘疳痢羸瘦, 遲軟解顛’ 등이 발생하기 쉽고, ‘肺常不足’으로 外感 등의 증상이 쉽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치료는 脾胃調節에 중점을 두면서 補肺益腎과 瀉心肝을 위주로 하였으며 “肝心之搖, 多用驚瀉, 肺脾之搖, 多用溫補也”⁶¹⁾라고 하였다.

③ 脾胃를 중시

萬全의 『育嬰秘訣』과 『幼科發揮』에서 脾胃를 중시한 소아과 학술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萬氏는 “小兒久病, 只以補脾胃爲主, 補其正氣, 則病自愈”⁶²⁾라 하였고, 그가 기술한 秘傳十三方 가운데 胃苓丸, 養脾丸, 香連丸, 一粒丹 등이 모두 脾胃의 병변을 치료하는 상용방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 萬氏는 또한 “肥兒丸以補脾胃之弱, 又加黃芪調元湯, 錢氏異功散, 參苓白朮散, 皆調理脾胃之要藥也”⁶³⁾라 하였고, 保和丸에 대

52)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63. “有固於胎毒者, 如丹疹瘡癰之類, 宜解其毒, 如幼嬰解毒延齡丸, 溯源解毒湯之類是也. 有因胎稟不足者, 如解顛五軟之類是也, 宜地黃丸主之. 有因外感風寒暑濕之氣得之者, 謂之外因. 有因飲食寒熱之傷得之者, 謂之內因. 有因客忤傾跌湯火得之者, 謂之不內外因. 如外因者, 發散之. 內因者, 消導之. 不內外因者, 各從其症治之”
 53)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83. “有外因者, 不問風寒暑濕之邪, 并宜香蘇散加紫蘇香附陳皮甘草, 外加常山檳榔烏梅 …… 有內因飲食不化, 積而成痰, 痰變爲癰, 宜平胃散加常山, 烏梅, 檳榔 …… 有不內外因者, 客忤中惡, 夢寐顛倒成癰者, 此邪癰也, 宜四聖丸加家傳斬鬼丹主之”
 54)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肝常有餘, 脾常不足”

55)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心常有餘而肺常不足”
 56)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57)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此所謂有餘不足者, 非經云虛實之謂也”
 58)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59)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60)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7.
 61)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69.
 62)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91.
 63)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100.

해 “保和丸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丹溪保和丸은 ‘二陳湯에 消導藥을 가한 것’으로 氣實한 경우, 둘째 家傳保和丸은 ‘異功散에 消導藥을 가한 것’으로 氣虛한 경우, 셋째 加減保和丸은 ‘丹溪保和丸에 平胃散과 積朮丸을 가한 것’으로 오직 久積有熱한 경우, 넷째 秘傳保和丸은 ‘加減保和丸과 家傳保和丸’을 相合하여 변화시킨 것으로 久積成疝한 경우에 사용한다.”⁶⁴⁾고 하여 脾胃病의 常用方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④ 임상치료

萬氏의 소아 치료를 보면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누적된 임상경험과 萬全 자신의 임상경험이 합쳐진 풍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咳嗽’의 경우 “咳嗽治法有三: 有發汗, 有下泄, 有清補”⁶⁵⁾라 하여 發汗에는 五虎湯으로 ‘散風寒’하고, 下泄에는 葶藶丸으로 ‘瀉肺喘, 通水道’하고, 清補에는 阿膠散으로 ‘定喘清痰止咳’하였다. ‘夏日泄瀉’에 대하여 “夏月泄瀉, 小兒極多, 治有三法, 清暑一也, 利小便二也, 溫中三也”⁶⁶⁾라 하였다. ‘寒涼止瀉’하는 일반적 치료에 대해 “以涼藥止之, 治壞病也”⁶⁷⁾라 하였고, ‘渴證’에 대해서는 白朮散을 중시하여 “白朮散治瀉渴不止要藥也”⁶⁸⁾, “吐瀉而渴者, 白朮可投. 煩熱而渴者, 益之爲最”⁶⁹⁾라 하였다. 또한 ‘治瀉’에 대하여 “治瀉大法, 不問寒熱, 先服理中丸. 理中者, 理中氣也: 治泄不利小便, 非其治也, 五苓散主之. 更不止, 胃氣下陷也, 補中益氣湯, 清氣上昇則不瀉矣, 又不止者, 此滑瀉也, 宜澀之, 豆蔻丸主之, 此祖傳之秘法也”⁷⁰⁾라

고 하였다. 肺系질환에 대해서는 肺의 主證, 兼證, 所生病을 불문하고 ‘紫蘇’, ‘桔梗’을 잘 운용하여 肺氣가 상충하는 咳嗽에 ‘清肺飲, 參蘇飲, 加減大安丸’ 등을 위주로 치료하였다. 또한 용약에 ‘藥引’의 작용을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秘傳十三方 가운데 ‘涼驚丸’에 관한 설명을 보면 “…… 竹葉燈芯湯下. 急驚, 薄荷燈芯湯下, 胎熱, 竹葉燈芯湯下. 衄血, 茅花湯下. 丹毒斑疹, 升麻湯下. 口瘡, 水竹葉, 薄荷湯下”⁷¹⁾라 하여 대부분의 방제 뒤에 藥引의 기능을 설명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⑤ 痘疹

萬氏는 小兒痘疹에 대해 특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痘疹의 병인에서부터 出痘 및 收靨의 순서, 善惡表現, 氣運, 氣血의 관계, 수반되는 증상의 처리, 耳目·口齒·胸腹部의 진찰, 상용약물, 先哲格言, 痘後餘毒症治 및 古今經驗諸方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천술하였다.

「原痘論」에서 “痘瘡은 聖瘡이라고도 하여 변화막 측하기 이룰데 없다. 혹은 天瘡이라고도 하며 天行疫癘를 말한다. 혹은 百歲瘡이라고도 하여 일생을 통하여 반드시 한번은 발병하는 것이다. 혹은 豌豆瘡이라고도 하여 豌豆와 형상이 비슷하다.”⁷²⁾고 하여 痘疹의 병인, 病性, 형상,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出痘順序’에 대해 “初出血點兮, 紅鮮得生之氣. 次化水液兮, 白瑩漸長之狀. 膿成而色黃兮, 欲收之候. 痂結而色黑兮, 已藏之象”⁷³⁾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치료에 있어서 萬氏는 朱丹溪의 ‘安表, 和中, 解毒’ 치법과 張從政의 ‘祛邪務盡’하는 攻下法을 서로 결합하여 “發表須用辛甘清陽之劑, 如羌活防風升麻白芷桂枝之類 …… 和中須甘溫濁陽之劑, 如人蔘當歸甘草芍藥之類 …… 解毒須用苦寒之劑, 如牛蒡連翹葛根芩連梔柏

64) 萬全 著. 育嬰秘訣(卷1).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344. “保和丸有四: 丹溪保和丸, 乃二陳加消導藥. 氣實者宜用之. 家傳保和丸. 乃異功散加消導藥. 氣虛者宜用之. 加減保和丸, 乃丹溪保和丸加平胃散, 積朮丸也. 惟久積有熱者宜用之. 秘傳保和丸, 又加加減保和丸, 家傳保和丸相合變化也, 久積成疝者宜用之”

65) 萬全 著. 片玉心書.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65.

66)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7.

67)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7.

68)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9.

69) 萬全 著. 片玉心書.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3.

70) 萬全 著. 幼科發揮(上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73.

71) 萬全 著. 片玉心書.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110.

72) 萬全 著. 痘疹心法·原痘論.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 “痘瘡, 或云‘聖瘡’, 言其變化莫測也. 或曰‘天瘡’言爲天行疫癘也, 或曰‘百歲瘡’, 言人自少至老, 必作一番也. 或曰‘豌豆瘡’, 言其形之相似也, 故病此者, 如蛇蛻皮, 如龍蛻骨, 死生存于呼吸之間”

73) 萬全 著. 痘疹心法(卷一).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

之類”⁷⁴⁾라 하여 發表를 우선하고 解毒을 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小兒痘疹의 치료도 기타 다른 小兒雜病 치료처럼 脾胃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痘疹의 예후에 대해서도 “凡痘瘡能食者, 雖重亦吉, 不能食者, 雖輕亦危矣”⁷⁵⁾라 하여 음식과의 상관성을 중시하였다.

5) 薛己

(1) 薛己의 小兒科 저서

① 『保嬰撮要』

全書는 20권으로 1554년에 간행된 것으로 薛鎧가 撰하고 그의 아들인 薛己가 증보하였다. 1권에는 論臍風, 虎口三關脈色診法, 小兒護養法 및 五臟所主證候 등이 기재되어 있고, 2권~10권에는 小兒急驚, 慢驚, 風熱風證, 五軟, 五遲, 發熱, 咳嗽, 黃疸, 呃逆, 脫肛, 諸淋, 遺尿, 蛔蟲, 不寐, 驚悸 등 소아의 外感, 內傷, 雜病이 기재되어 있다. 薛己가 撰한 後10卷 중 11권~16권에는 腫瘍, 癰癤, 疥瘡, 天疱瘡, 發斑, 黃水粘瘡, 喉痹, 腮腫, 腸癰, 痔瘡, 五癰, 跌撲外傷, 瘋犬傷, 金木所傷 등과 같은 小兒外科諸疾, 17권~20권에는 痘疹諸證이 수록되어 있다. 全書에 걸쳐 200여종 이상의 병증이 기재되어 있는데 병증마다 뒤에는 薛己의 경험안이 첨부되어 변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② 『保嬰金鏡錄』

薛鎧의 아들인 薛己가 1554년에 간행하였고 ‘面部見色主症’, ‘虎口三關脈紋主症’, ‘十三指形主症’ 및 ‘附方’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아병의 진단방법에 대해 주로 논술하였다.

이상 『保嬰撮要』, 『保嬰金鏡錄』 두 의서에 나타난 薛氏의 소아과에 대한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薛己의 소아과 학술사상

74) 萬全 著. 痘疹心法(卷六).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110.

75) 萬全 著. 痘疹心法(卷四).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85.

① 望診의 중시

『保嬰撮要』와 『保嬰金鏡錄』 모두 일관되게 望診을 중시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특히 『保嬰金鏡錄』의 4부분 가운데 ‘面部見色主症’, ‘虎口三關脈紋主症’, ‘十三指形主症’의 3부분이 望診에 관한 내용이다.

面部에 관한 것은 『全幼心鑒』을 근간으로 하여 ‘額間, 左臉, 右臉, 鼻, 頰, 腮, 印堂, 目內, 人中, 唇, 口畔, 耳前’ 등 부위별 색깔을 관찰하여 辨證論治하였고, 虎口三關은 『水鏡』에서 언급한 ‘紋形’과 ‘紋色’을 기초하여 三關의 紋形을 13종으로 나누어 “是以首察面色而知其所屬, 次驗虎口以辨其所因矣, 然猶未足以盡病之源, 故餘復注十三指形, 實爲治法之簡便爾”⁷⁶⁾라 총결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언급하였다.

② 脾胃를 중시

薛氏는 “東垣의 法은 한결같이 脾胃를 위주로 하였으니 이른바 補腎이 補脾함만 못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이다. 小兒가 비록 乳食을 하지만 水穀之氣가 未全하니 胃氣가 虛하게 되면 四臟이 모두 滋養하는 바를 잃게 된다”⁷⁷⁾고 하였다. 또한 “小兒諸病은 먼저 脾胃를 調補하여 근본을 견고하게 하면 諸病이 스스로 물러나니 약이 아니더라도 물리칠 수 있다”⁷⁸⁾고 하여 소아병의 치료에 脾胃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薛氏의 소아학술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이를 원칙으로 삼아 처방에 있어서도 脾胃虛弱하고 脾氣下陷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아병의 調理 등에서도 東垣의 補中益氣湯이나 異功散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脾胃虛寒과 脾氣下陷은 命門의 火가 衰하여 中州之氣를 溫蒸할 수 기 때문이다”⁷⁹⁾고 하여 소아의 腎氣를 溫補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76) 薛己 撰. 保嬰金鏡錄·十三指形症.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 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77)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42. “東垣之法, 一以脾胃爲主, 所謂補腎不若補脾, 正此意也, 在小兒雖得乳食, 水穀之氣未全, 尤仗胃氣, 胃氣一虛, 則四臟俱失所養矣”

78)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38. “凡小兒諸病, 先當調補脾胃, 使根本堅固, 則諸病自退, 非藥所能盡祛也”

79)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88. “脾胃虛寒, 脾氣下陷乃由於命門火衰, 不能溫蒸中州之氣”

③ 小兒 外傷科에 대한 공헌

薛己는 외과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외과지식은 소아과에 도입되었고 소아외과 분야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小兒腫病 가운데 膿의 형성에 관해 “按之不起者, 膿未成也. 按之即起者, 膿已成也”⁸⁰⁾라 하였고, 외과적인 치료에 ‘刀鍼’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內治’를 주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脾胃之氣를 濫補하는 것을 중시하여 “治法必察其腫之高漫, 色之赤白, 痛之微甚, 作膿之難易, 出膿之稠薄, 生肌之遲速, 以別其屬陰屬陽 …… 又當審其受症之傳變, 五臟之相勝, 而以調補脾胃爲主, 庶不致變惡症也”⁸¹⁾라 하였다.

6) 『萬氏醫貫』

『萬氏醫貫』은 明代 萬寧이 찬한 것으로 隆慶元年인 1567년에 成書되었다.

本書는 天·地·人 三部로 나누어지고 또 매부마다 上·下 두 권으로 다시 나누어져 있다.

天部·卷上에는 胎原, 胎弱, 臍風, 撮口 등 초생아 병증 및 肝經主病(急, 慢驚風, 驚風類證等), 卷下에는 心經主病, 兼證 및 刀瘡, 赤爛瘡, 重舌 등 외과질환과 諸汗, 諸熱. 脾經主病, 兼病(諸腫, 腹痛 등)에 관한 내용이고, 地部·卷上에는 吐瀉, 痢疾, 瘡疾, 卷下에는 疳證, 黃疸, 調理脾胃, 肺經主病, 腎經主病, 五臟虛實補瀉, 五邪之氣로 인한 所生病 등에 관한 내용이고, 人部의 卷上·卷下는 모두 방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本書는 醫論과 醫案이 서로 결합되어 있으며 醫案 127則, 方劑 277種, 補遺眞方 17種, 補遺古方 25종이 수록되어 있다.

萬寧의 학술사상은 萬全의 학술사상을 계승하여 ‘肝有餘, 脾不足’의 요지를 따랐으며 驚風 치료를 논한 것을 보면 ‘急驚風類證’ 등 대부분 『幼科發揮』의 내용을 본받았다. 小兒雜病을 치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小兒의 面微腫을 치료할 경우에는 胃苓丸으로

치료하고 面腫이 심한 경우에는 ‘胃苓丸 本方に 紫蘇葉二錢, 苦葶藶一錢을 가하여’ 肺經의 風을 제거하고, 足腫에는 ‘本方に 防己二錢, 黑丑炒, 取頭末一錢을 가하여’ 丸으로 만들어 燈心煎湯으로 下한다”⁸²⁾라 하여 용약에 자신만의 독창성을 발휘하였고, 또한 “泄瀉 치료에 三法이 있으니 우선 理中丸을 쓰고, 한번 복용하여 그치지 않으면 다음으로 五苓散을 쓰며, 계속 그치지 않으면 人參白朮散을 복용한다. 오래도록 복용하였는데도 그치지 않으면 參苓白朮散을 쓰면 반드시 효과를 본다”⁸³⁾고 하여 健脾滲利를 중시하여 ‘人參·茯苓·白朮’ 등의 약물을 선용하였다.

7) 『幼科證治准繩』

『幼科證治准繩』은 明代의 저명한 의가인 王肯堂이 편집한 『證治准繩』(一名 『六科准繩』) 중의 하나로 1607년에 成書되었다.

本書는 모두 9集으로 1集은 初生門, 2集은 肝臟門, 3~6集은 心臟部, 7, 8集은 脾臟部, 9集은 腎과 肺臟部로 구성되어 있다. 本書는 宋元代를 위주로 前代의 문헌들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證治’에 중점을 두고 임상예 편리하도록 편집하였다.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麻痘를 중시

王氏는 序文에서 “吾輯爲是編, 而麻痘一門尤加詳焉”⁸⁴⁾이라 하여 4~6集 「心臟部」 조문에서 痘疹에 대해 上·中·下 三集으로 편성하고 그 淵源, 預防, 診斷, 治法 및 痘疹起發, 灌漿, 收靨落痂, 兼證, 並發症, 善後調養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천발하였다.

82) 萬寧 著. 萬氏醫貫·天部卷下 中國醫學大成續集(3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0. “予奉先君教, 兒微腫者, 只用胃苓丸治之, 如面腫甚者, 胃苓丸本方內加紫蘇葉二錢, 苦葶藶一錢, 隔紙炒, 以祛其肺經之風, 足腫者, 本方內加防己二錢, 黑丑炒, 取頭末一錢, 共爲丸, 燈心煎湯下”

83) 萬寧 著. 萬氏醫貫·地部卷下 中國醫學大成續集(38).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35. “予治泄瀉, 始終有三法, 初用理中丸, 一服不止, 次用五苓散, 二服分利, 又不止. 三用人參白朮散服之, 良久仍不止, 再用參苓白朮散論理, 未有不效”

84) 王肯堂 輯. 證治准繩·幼科·自序.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1.

80)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292.

81) 薛己 撰. 薛氏醫案·保嬰撮要. 文淵閣四庫全書卷三十一.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527.

또한 痘症 치료에 魏直의 『博愛心鑒』의 영향을 받아 “痘症은 元氣를 위주로 치료한다. 元氣가 충실하면 毒이 쉽게 出하여 낫는다. 따라서 痘를 잘 치료하는 자는 虛弱해지기 전에 미리 元氣를 도와서 元氣가 갑자기 耗散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 一日은 腠理를 實하게 하고 肌表를 固하게 하며, 二日是 飲食을 절제하여 脾土를 보호하고 …… 다시 參芪 등을 써서 補益하여 元氣가 자연 충실해지면 痘가 쉽게 出하여 漿이 생겨 變證이 발생하지 않고 순조롭게 出된다”⁸⁵⁾고 하여 保元을 위주로 치료하였다.

(2) 中風類證說

王氏는 소아과에서 中風이라 알려진 것의 대부분은 肝血不足이나 脾土亡失과 같은 원인에 기인한 壯熱, 抽搐 등의 中風類證이지 眞中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大人且無眞中, 況小兒乎”⁸⁶⁾라 하여 소아과에서 中風을 배제시켰다.

8) 秦昌遇

字는 ‘景明’이며 明末 上海人으로 소아과 분야에 뛰어들었다. 저서로는 『幼科金鍼』, 『幼科折衷』, 『脈法領珠』, 『痘疹折衷』, 『大方折衷』, 『症因脈治』 등이 있다.

『幼科金鍼』은 1641년에 成書되었고, 上·下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매권마다 50編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下卷 4編이 실전되어 현재는 96편이 전해진다. 그 내용은 ‘胎寒, 胎熱, 胎怯, 胎驚’ 등 신생아 질병, ‘傷風, 傷寒, 咳嗽, 喘急, 天哮’ 등 소아 외감병, ‘傷食, 傷積, 吐瀉, 五疳, 五痢, 五淋, 水腫, 黃疸, 蛔厥, 急慢驚’ 등 내상잡병, ‘耳潰, 鼻風, 重舌木舌, 乳蛾, 喉痹’ 등 五官病, ‘赤游丹毒, 奶癩, 葡萄疫’ 등 外科病을 포괄하였고, 매편 證마다 먼저 七言詩 4句로 그 요지를 나타낸 後病因, 病機, 治療, 方藥을 설명하였다.

『幼科折衷』도 역시 1641년에 성서되었다. ‘折衷’에 대해 작자는 “是編之作, 因幼科諸書, 非偏寒偏熱之誤, 便喜補喜瀉之殊, 予故僭而折衷之”⁸⁷⁾라 하였다. 本書는 2권으로 上卷에서는 ‘驚風, 疳證, 瀉痢, 嘔吐, 痢證, 汗證, 蟲證’ 등 雜病에 대해 論治했고, 下卷에는 ‘初生兒 諸疾, 護養法, 變蒸’ 등에 관한 이론이다.

『幼科金鍼』과 『幼科折衷』에 나타난 秦氏의 특징적인 의학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아과 차례의 변화

『幼科折衷』에서는 대개 소아과를 논할 때 초반부에 언급되는 ‘初生諸病, 小兒護養, 變蒸’ 등을 후반부인 下卷에 두고 ‘驚風, 疳證, 瀉痢’ 등 소아잡병을 上卷에 배치함으로써 임상적인 면을 우선시한 차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 神을 중시

秦氏는 “哺露는 脾胃가 오래 虛해져 水穀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精神이 減損된 것이다”⁸⁸⁾라 하였고, 또한 “熱吐는 精神이 不悅하여 煩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⁸⁹⁾고 하여 소아과에서는 드물게 ‘神’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搐에 대한 치료

秦氏는 “驚은 心에서 生하고, 風은 肝에서 生하며, 搐은 氣에서 비롯된다. 이른바 搐이 氣에서 비롯되다는 것은 대개 風寒暑濕燥火의 氣運이 不順하게 되면 어느 순간 氣가 喉間에 滯滯되어 心肺를 搏하고, 肝經으로 전입되어, 그 氣가 위로 昇하지 못하고, 아래로 降하지도 못하여 晝夜로 鬱滯되어 유행할 수 없기 때문에 痰涎壅蔽하여 搐을 일으킨다”⁹⁰⁾고 하여 搐의

85) 王肯堂 輯. 證治準繩·(卷四)·虛實.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293. “痘症以元氣爲主, 元氣充實則毒易出易化, 故善治痘者, 惟保元氣于虛弱之前, 便不至于耗散爲貴耳, 然其治療唯何? 一日實腠理而固肌表, 二日節飲食而保脾土 …… 更加以參芪補益之功則元氣自然充實, 而痘之出也自然易以成漿, 變證不生而結賦順矣”

86) 王肯堂 輯. 證治準繩·(卷三)·中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130.

87)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凡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1.

88)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疳積.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14. “哺露者 …… 皆因脾胃久虛, 不能消化水谷, 以致精神減損”

89)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諸吐.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16. “熱吐者 …… 精神不悅而多煩渴”

90)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急慢驚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7. “驚生於心, 風生於肝, 搐始於氣 …… 所謂搐始於氣者, 蓋因風寒暑濕燥火之氣, 有一不順, 便蓄於

病因, 病機, 病位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驚風證과 구별하였으며 “大抵治搐之法, 以寬氣爲妙, 氣順則搐停 …… 亦宜寬氣飲治之”⁹¹⁾라 하여 寬氣를 위주로 한 치료원칙을 주장하였다.

9) 『痘疹博愛心鑒』

本書는 明의 魏直이 撰했고 1525년에 成書되었다. 全書는 모두 2권으로 上卷에는 ‘氣血交會圖, 保元交會圖, 順逆險三法圖 및 痘出各期之順逆險圖’가 수록되어 있고, 每圖 아래에는 圖說이 첨부되어 있고 保元湯, 升麻葛根湯 등 10여 종의 상용방제가 기재되어 있다. 下卷에는 原痘, 察形, 驗色, 稀稠, 順逆, 癢塌 및 面目項腫이나 咽啞水瘡 등 兼證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本書는 소아 痘科學에 대한 공헌은 매우 커서 전술한 내용 외에도 保元益氣를 치료원칙으로 삼았다. 작자는 “治痘當先治氣, 此不易之常法也 …… ”⁹²⁾라 하여 용약에 ‘人蔘, 黃芪’ 등을 선용하였고, 동시에 “保元湯即東垣所制黃芪湯 …… 惟其用藥有起死回生之功, 有轉危就安之力, 予故僭改爲保元湯也”⁹³⁾라 하여 東垣의 黃芪湯을 保元湯으로 개명하여 이를 위주로 痘疹을 치료하였다. 本書가 후세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며 특히 汪機의 『痘治理辨』은 魏直의 설을 주로 인용하여 성서된 것이다.

10) 『痘治理辨』

明代 汪機가 1530년에 저술했다. 서론에서 “予今所輯, 以諸家所論列之於前, 而以魏君⁹⁴⁾之說辨之於後”⁹⁵⁾라 하여 汪氏가 말한 것처럼 痘症에 대한 전문서로

특히 魏直의 설을 주로 인용하였는데 이를 총결하면 다음과 같다.

(1) ‘痘出’의 이치에 대한 연구

작자는 ‘痘出’의 이치에 대해 “血이 먼저 이르고 氣가 나중에 이른다. 血이 毒을 싣고 出하여 表에 이르면 氣가 모이고, 氣와 血이 交會하여, 氣가 中에, 血이 外에 작용함으로써 痘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⁹⁶⁾라 하였다. 따라서 치료에 “治痘之要, 必須加治於氣血 …… 用人蔘以固元, 內實則續其衛氣之不足, 黃芪以補表, 外實則能益其元氣于有餘”⁹⁷⁾하다고 주장하여 痘症의 병인, 치료 方面에서 氣血을 중시한 魏直의 설을 본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痘治法則

本書에서는 “治痘用藥之要, 始出之前, 宜開和解之門, 既出之後, 當塞走泄之路, 痲落已後, 清涼漸進, 毒去已盡, 補益宜疏 …… ”⁹⁸⁾라 하여 용약에 痘出 이전과 이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한 후에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기간을 보다 세분화하면 痘症의 ‘未出, 既出, 痲落, 毒盡’ 4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11) 『摘星樓治痘全書』

本書는 일명 『治痘大成』 또는 『痘科大成』이라고도 하며 明代 朱一麟이 撰하여 1619년 간행되었다. 本書는 모두 18권으로 1권에는 錢乙, 陳文中, 薛己, 萬全, 河間, 東垣, 丹溪, 海藏 등 古今名公方論, 2권~8권에는 發熱三日, 見點三日, 起脹三日, 灌膿三日, 收靨三日의 分별과 靨後落痲, 痘後餘毒의 論治, 9권에는 婦女痘疹證治, 10권, 11권에는 痘內雜證의 諸家論治, 12

喉間, 搏於心肺, 傳入肝經, 其氣上不能昇, 下不能降, 使晝夜鬱滯不得流行, 故痰涎壅蔽而作搐也”

91)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急慢驚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6.
 92)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卷上).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03.
 93)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卷上)·痘疹博愛心鑒.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03.
 94) 『痘疹博愛心鑒』의 著者인 魏直을 가리킨다.
 95) 汪石山 著. 痘治理辨·序文.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96) 汪石山 著. 痘治理辨·痘疹當分輕重治之.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余嘗究痘出之理, 血先至而後氣也, 血載毒出, 至表會氣, 氣交于血, 血會於氣, 氣尊於中, 血附於外, 痘始形焉”
 97) 汪石山 著. 痘治理辨·諸熱失治變爲瘡疹.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98) 汪石山 著. 痘治理辨·加減藥味品性製法.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권에는 治痘經歷, 13권, 14권에는 古方總列, 15권, 16권에는 蓬廬集 上·中·下篇과 治痘辨難, 17권에는 游戲篇, 屬痘疹概論, 18권에는 補遺가 수록되어 있다.

本書에서는 每論마다 名家의 견해를 인용하고 또한 朱氏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本書는 明代 痘科 분야 專書에 해당하며 특히 醫案, 醫方 方面에서 소아 痘科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 醫案

本書 12권 '治痘經歷'은 醫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治痘醫案 111例가 기재되어 있으며 매 醫案마다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증상, 痘出日期, 치료, 調護, 예후' 등이 상세히 기록된 痘疹에 관한 전문 醫案이다.

(2) 醫方

13권, 14권에 治痘驗方 456수가 수록된 것 외에 101味の 治痘 常用 藥물에 대한 성미 및 주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후 痘疹의 임상치료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2) 『疹科』

本書는 明代 曲阜 孔弘擢이 1604년에 찬한 明代 최초의 '麻疹'에 대한 전문의서라 할 수 있다.

작자는 「序文」에서 “痘疹之不可混同治也, 辟之瀉痢然 …… 諸家所載, 痘疹不同, 及考其方, 則痘詳而疹略, 甚者痘不言疹, 此無他, 昔也痘重而疹輕, 今也疹之慘毒, 與痘并酷, 則疹治不得不詳 …… ”⁹⁹⁾이라 하여 痘瘡과 麻疹을 명확히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다. 本書는 '疹科'와 '疹科方'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附石氏治療經驗良方'이 첨부되어 있다.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原疹賦」에서 “其發也, 與痘相似, 其險也, 比痘非輕 …… 不知毒起於脾, 熱流於肺, 始終之變, 腎則無忌, 臟腑之傷, 肺獨受制, 初則發熱, 似傷風寒, 眼出泪而不止, 鼻涕而不乾, 咳嗽喘急, 煩躁不安, 以火照之, 隱隱於皮膚之下, 以手摸之, 磊磊肌肉之間, 其形若芥, 其色似丹, 隨出隨沒, 乍隱乍宣 …… 疹毒最重, 治法不同 …… 所喜者, 身上清涼, 所畏

99)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疹科·序文.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08.

者, 咽間腫痛, 飲水不休, 法在生津養血 …… ”¹⁰⁰⁾이라 하여 麻疹의 발생, 형상 및 痘疹과의 구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疹子之出貴乎發散于先, 其毒自解, 則無餘邪以爲後累”¹⁰¹⁾라 하여 麻疹의 치료에 邪毒을 발산시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 『痘疹金鏡錄』

일명 『增補痘疹玉髓金鏡錄』이라고 하며 明代 翁仲仁이 1579년에 저술했다. 全書는 모두 4권이며 1권에서는 歌括형식으로 小兒常見病의 證治를 논술하였고, 2권에서는 痘疹施治法, 3권에서는 痘疹의 兼證, 順證, 吉凶, 後遺證의 치료, 藥물응용, 4권에서는 痘疹常用湯散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2卷 '痘期施治法'에서는 “夫痘由中以達外, 用藥因期而變通, 以其常而言之, 發熱三日而後見標, 出齊三日而後起眼, 蒸長三日而後貫膿, 漿滿三日而後收厭 …… 發熱三日當托呈解毒 …… 四, 五, 六日以清涼解毒爲主 …… 七, 八, 九日以貫膿爲主 …… 十與十一, 十二日以收斂主, 大和氣血, 補脾利水, 則自然結厭矣”¹⁰²⁾라 하여 각 期에 따른 痘證의 변화, 治則의 개요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夫氣有生血之功, 血無益氣之理, 故氣不可虧, 虧則陽會不及而痘之園暈之形不成, 血不可盈, 盈則陰乘陽位, 而痘之倒厭立至”¹⁰³⁾라 하여 痘疹의 치료에 補氣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약아의 痘症 치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소아의 痘症이 氣虛와 연관되면 마땅히 補氣해야 하고, 氣虛하면서 易寒하면 마땅히 溫해야 한다. 이와 같은 溫補의 法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輕重을 헤아려 處治해야 神妙한 效과가 나타난다.”¹⁰⁴⁾고 하여 그 치료원칙을 설명하였다.

100)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疹科·原疹賦.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p.208-209.

101)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疹科·序文.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09.

102)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金鏡錄(卷2).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0.

103)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金鏡錄(卷2).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0.

104)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金鏡錄(卷2).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0. “治虛弱痘症有二法: 小兒痘症的系氣虛則宜補氣, 氣虛易寒, 又宜溫之, 溫補一法之中, 酌量輕重處治, 方爲妙用”

14) 『痘疹傳心錄』

本書는 明의 朱惠明이 찬했고 1549년에 간행되었다. 本書는 十六卷으로 痘疹의 病因病機, 兼症, 並發症, 分類, 看法과 治法, 痘始, 起脹, 養漿, 漿原, 收靨, 靨後餘症, 靨後禁忌, 婦人痘疹, 水痘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癩疹과 상세한 비교 감별을 시도하였고 每論마다 자신의 經驗案을 첨부하였다.

朱氏는 痘疹의 치료원칙에 있어서 丹溪의 治痘法과 魏直의 順逆險分類法 및 脾胃元氣를 중시하는 원칙을 따랐다. “蓋痘有千態萬狀, 惟氣虛, 血熱, 毒壅之症. 治有千方萬法, 惟發表, 和中, 解毒三法”¹⁰⁵⁾이라 하여 丹溪의 治痘法을 계승하였고, “魏氏治痘, 立順逆險三法, 以鳴于世”¹⁰⁶⁾라 하여 魏直의 방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치료에 있어서는 “痘之出以正額爲主, 又要以兩顴頰爲助”¹⁰⁷⁾라 하여 頭面部로 ‘痘’가 출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고 脾胃元氣를 중시하여 人蔘, 黃芪 등의 약물을 선용하였다.

특히 痘瘡과 癩疹에 대한 경험안이 매우 많아서 小兒痘瘡 375종, 婦人痘瘡 25종, 癩疹 54종, 水痘 5종, 斑瘡 13종에 이르는 많은 醫案을 수록함으로써 痘疹에 관하여 집대성하였다.

15) 『活幼心法』

本書는 明代 聶尚恒이 撰했고 1616년에 成書되었다. 全書는 9권이고 그 중 7권, 8권에 痘疹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권은 痘證에 대한 專論으로 受病之源, 折諸家之衷, 辟時醫之謬를 비롯해 痘症의 發熱, 出齊, 灌漿, 回水, 結痂 등에 관한 것과 治痘醫案 11條가 수록되어 있고, 8권에는 痧症, 癩疹治法, 9권에는 小兒雜病에 해당하는 急慢驚風, 吐瀉, 疳, 腹痛, 發熱 등의 병증이 수록되어 있다.

本書의 특징적인 내용은 먼저 저자가 「折諸家之衷

」에서 “痘證을 치료한 諸家들의 치료 방법을 보면 劉河間은 대부분 寒涼法으로 치료하여 偏僻됨이 적지 않고, 錢仲陽은 解毒을 위주로 立方하면서 寒涼한 처방을 多用하고 溫補시키는 처방이 적고, 張潔古, 王海藏 등도 모두 그의 뜻을 받들어 諸瘍은 心火에 屬한다는 『內經』의 이론을 근본으로 삼아 寒涼한 것으로 瀉火시키는 방법을 따랐다. 그러나 陳文中이 立方한 바를 살펴보면 그러한 偏僻된 바를 바로잡아 溫補에 주력함으로써 痘瘡이 未出한 경우에는 十一味木香散, 已出한 경우에는 十二味異功散을 쓰는 등 太陰經을 중시하였다.”¹⁰⁸⁾고 하여 陳文中의 영향을 많이 받아 補益氣血을 위주로 痘瘡을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痘의 生死는 膿의 有無로 판별한다. 膿이 있으면 毒이 外로 散하여 生할 수 있고, 膿이 없으면 毒이 內에 머물러 攻擊함으로써 死한다. …… 灌膿을 늦추지 말고 신속히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¹⁰⁹⁾고 하여 灌膿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痘瘡의 예후를 판단하고 용약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두었다. 치료에 있어서 ‘逐毒在前, 解毒居後’의 원칙에 따라 “未出之毒不可解, 但當逐之出外也”¹¹⁰⁾라 주장하고, 치료방법으로 “實熱한 경우에는 그 壅滯된 바를 宣發함으로써 毒을 外部로 逐出し시키고, 虛寒한 경우에는 氣血을 補助하여 毒을 外部로 逐出한다.”¹¹¹⁾고 하였다. 錢乙의 寒涼法에 반대하여 “味痲之前 …… 姑禁絕不用. 直待

108)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活幼心法(卷1)·折諸家之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3. “治痘之家多矣, 劉河間悉用寒涼, 偏害不小, 錢仲陽立方以解毒爲主, 而多用寒涼少用溫補, 張潔古, 王海藏咸宗其意, 俱本于『內經』諸瘍屬心火之言, 故以寒涼瀉火也, 陳文中立方力矯其偏, 專主溫補, 在痘瘡已出未出之時, 諸證悉用十一味木香散, 已出諸證悉用十二味異功散, 其意歸重於太陰一經 …… ”

109)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活幼心法(卷3)·折諸家之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3. “痘之生死, 判于膿之有無, 有膿則毒從外散, 故生. 無膿則毒留內攻, 故死. …… 灌膿如拯溺救焚, 不可緩也”

110)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活幼心法(卷2)·折諸家之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4.

111)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活幼心法(卷2)·折諸家之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4. “實熱者, 宣發其壅滯以逐毒出外. 虛寒者, 補助其氣血以逐毒出外”

105)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傳心錄(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1.
106)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傳心錄(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1.
107)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痘疹傳心錄(卷3).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1.

結痲後, 用之解餘毒可也”¹¹²⁾라 하였다.

16) 『普濟方』

『普濟方』은 明初 周定王 朱棣와 教授 騰碩, 長史 劉醇 등에 의해 編纂되었고, 原書는 원래 168권인데 四庫全書本은 426권으로 개편하여 간행하였다.

그 중 358~408권은 「嬰孩」로 모두 51卷, 22門, 357論으로 되어 있다. 풍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明代 초기 소아과 부분을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哺乳를 중시

작자는 “物萌失之灌溉, 長必焦萎, 兒誕違之乳哺, 壯必怯弱”¹¹³⁾이라는 이치에 따라 “哺乳가 적절하지 못하면 幼兒는 설사 뚜렷한 병이 없더라도 점점 衰弱해지며, 또한 음식이 적절하지 못하면 설사 질병이 없더라도 저절로 怯이 많아진다.”¹¹⁴⁾고 하고, 이로 인하여 “乳不可失時, 食不可不節”¹¹⁵⁾이라 강조하였다.

‘乳’와 ‘食’을 구별하여 “乳者壯其肌膚, 食者厚其腸胃”¹¹⁶⁾라 하여 “적어도 2~3세까지는 哺乳를 해야 소아의 신체를 補益할 수 있는데 요즘은 돌이 되기도 전에 젖을 끊고 甘甘한 맛을 섭취하니 어찌 질병이 발생하지 않겠는가?”¹¹⁷⁾라 하여 幼兒의 哺乳를 강조하였다. 심지어 「審小兒得病之源」에서 病源 40조를 열거하면서 “大喜後乳食, 多變驚癇 …… 夜露下幼兒, 多成嘔吐”¹¹⁸⁾라 하여 幼兒 질병의 대부분이

哺乳失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2) 소아생리의 특징

소아 생리에 대해 작자는 “小兒不能言, 精神尤未備, 骨肉尤未堅, 形聲尤未正, 脈息尤未全”¹¹⁹⁾하기 때문에 “夫醫之道誠爲難矣, 而治小兒爲尤難理, 寧醫十丈夫, 莫醫一婦人 …… 寧醫十婦人, 莫醫一老人 …… 寧醫一老人, 莫醫一不語小兒, 何也 …… 語不能問其得病之由, 脈不能診其必然之理”¹²⁰⁾라 하였다. 이러한 소아생리의 특수성 때문에 성인들보다 더욱 자세하게 진찰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진단방법으로 ‘小兒面部氣色, 面上諸候察形歌, 虎口三關指掌, 三關指紋要訣, 三關紋色形狀, 虎口手紋脈訣, 聽聲音驗病’ 등을 제시하여 ‘面色, 指紋, 聲音’에 대한 관찰을 강조하였다.

(3) 小兒方藥

本書에는 무려 8,300여 가지 소아방제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을 보면 “治諸氣諸痰嗽喘”에 枳殼을 佐藥으로 善用했는데 이에 대해 “此藥不獨寬中, 最能行其氣, 氣下則痰下, 他證自平矣”¹²¹⁾라 하였고, ‘治痢’에 “痢出於積滯. 積, 物積也. 滯, 氣滯也”¹²²⁾라 하여 용약에 “物積, 用巴豆, 大黃輩. 氣滯, 用枳殼, 桔梗, 青皮, 蓬朮”¹²³⁾이라 하였으며, ‘小兒表證’에 “湯氏曰, 凡小兒發熱之初, 急須發汗, 次當發散, 然後調理, 要在一晝夜, 熱退爲佳. 今之醫者, 多不用麻黃, 但用惺惺散, 羌活散之類, 乃常法, 致令失表, 三五日熱不除, 入於經絡, 搏於血氣, 表裏受邪, 內外蘊熱, 變證蜂起 …… 皆失表之過”¹²⁴⁾라 하여 일반적으로 麻黃으로 發汗시키는 것에 반대하

112)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活幼心法(卷1)·折諸家之衷.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214.
 113)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60)·論初生諸疾病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74.
 114)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60)·論初生諸疾病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74. “乳失時, 兒不病自衰, 食失節, 兒無疾自怯”
 115)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60)·論初生諸疾病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74.
 116)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60)·論初生諸疾病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74.
 117)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60)·論初生諸疾病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74. “所謂乳哺二周三歲, 則益其體, 今人未周奪其乳, 入月恣肥甘, 豈不致疾”
 118)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59)·審小兒得病之源. 서울. 翰成社. 1981. pp.53-55.

119)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58)·嬰孩門. 서울. 翰成社. 1981. p.1.
 120)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58)·嬰孩門. 서울. 翰成社. 1981. p.1.
 121)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87)·嬰孩咳嗽喘門. 서울. 翰成社. p.805.
 122)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96)·嬰孩下痢門. 서울. 翰成社. 1981. p.1083.
 123)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96)·嬰孩下痢門. 서울. 翰成社. 1981. p.1083.
 124) 周定王, 朱棣 撰. 普濟方(卷358)·辨表裏諸證及治法. 서울. 翰成社. 1981. p.18.

였고, '瘡疹'에 대해 “大抵瘡痘之病, 首尾證平, 下之者誤. 首尾有實熱證, 不下者誤, 首尾有虛寒證, 不補者誤, 痘瘡出透澤肥紅證平者, 不須服藥”¹²⁵⁾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忌下忌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4) 소아질병에 대한 인식

작자는 소아질병에 대해 “與大人無異 …… 唯回氣, 臍風, 夜啼, 重舌, 變蒸, 客忤, 驚癇, 解顛, 魘病, 疳氣, 不行等大人無之, 自有專科, 不敢涉及”¹²⁶⁾이라 하여 소아질병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小兒傷寒證에는 傷寒正證과 驚이나 食에서 비롯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다”¹²⁷⁾고 하였고, 또한 “대개 中風은 모두 痰郁氣滯로 인해 발생하므로 痰消氣下하여 병세를緩和시킨 후에 辨證施治한다. …… 무릇 治風에는 반드시 理氣를 우선하여 오로지 風藥만 복용할 수 없고, 오히려 급하게 공격하여 치료할수록 風勢는 더욱 심해질 뿐이니 氣血을 和平시키고 營衛를 調暢하게 調治하면 風疾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된다.”¹²⁸⁾고 하여 소아병에 대한 특징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였다.

17) 『奇效良方』

本書는 太醫院使인 董宿, 方賢, 楊文翰 등에 의해 1470년에 간행되었다. 『奇效良方』의 원래 명칭은 『太醫院經驗奇效良方大全』이고 모두 69권이다. 그 중 65권 「瘡疹論」에서는 痘瘡의 初出, 已出, 出後證治, 預截熱毒, 疑似問解利, 解利餘毒 등의 調護法에 관한 것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瘡疹既出, 而有逆順者三, 有時之逆順, 有

虛實之逆順, 有出入之逆順”¹²⁹⁾이라 하여 瘡疹의 '順逆'에 대해 '時·虛實·出入' 3가지 방면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時'는 春夏秋冬 四季, '實'은 '大便秘而能食也', '出入'은 瘡疹의 透出과 內陷을 가리켰다. 順證에 대해 “春夏陽氣發生, 瘡疹出之爲順 …… 大小便秘而能食者, 此爲實順也 …… 瘡疹出者爲順”¹³⁰⁾라 하였다. 또한 瘡疹에 대한 '可下'와 '不可下'의 일반적인 치료 논쟁에 대해 “未出可下, 已出不可下, 出已定者當利其大小便”¹³¹⁾이라 하여 간명하게 그 요지를 설명하였다. “不可當風坐臥”¹³²⁾, “不問已發未發者, 皆可燒乳香于房室中, 令氣味不絕, 辟一切惡氣”¹³³⁾라 하여 瘡疹의 調護를 매우 중시하였다.

18) 『醫學正傳』

『醫學正傳』은 明代 虞搏이 1515년 撰하였고 모두 8卷이다.

卷8은 소아과에 관한 부분으로 소아의 驚風, 發搐, 五癇, 諸疳, 吐瀉 및 痘疹의 證治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특징을 보면 소아 진단에 “如一歲至六歲曰嬰孩, 惟以男左女右手次指三關之脈, 以爲驗病輕重死生之訣 …… 七歲, 八歲曰龔, 九歲, 十歲曰髻, 始可以一指探掌後尺寸三部之脈, 而以一息七, 八至爲無病之常脈, 十一歲至十四歲曰童稚, 而以一息五, 六至爲常脈也”¹³⁴⁾라 하여 소아의 연령에 따라 각각 다른 진단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痘脚稀疏, 根窠紅綻, 不瀉不渴, 乳食不成, 四肢溫和, 身無大熱”¹³⁵⁾이라 하여 痘瘡의 善證 6가지 증상을 설명하고 이런 경우 복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125)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卷403)·嬰孩痘疹門. 서울. 翰成社. 1981. p.1287.
 126)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卷395)·嬰孩吐瀉門. 서울. 翰成社. 1981. p.1049.
 127)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卷368)·嬰孩傷寒門. 서울. 翰成社. 1981. p.291. “兒傷寒證, 止議三種, 乃爲正要, 有正受, 來驚, 來食”
 128) 周定王, 朱橚 撰. 普濟方(卷358)·嬰孩門. 서울. 翰成社. 1981. p.1. “蓋中風皆因痰郁氣滯而作, 痰消氣下病勢稍蘇, 然後辨證施治 …… 朱氏曰, 凡治風必先理氣, 不可專服風藥, 攻之愈急則風勢愈甚, 且調治氣血和平, 營衛調暢, 則風疾不治而自愈”

129) 方賢 著. 奇效良方·瘡疹論.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552.
 130) 方賢 著. 奇效良方·瘡疹論.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552.
 131) 方賢 著. 奇效良方·瘡疹論.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566.
 132) 方賢 著. 奇效良方·瘡疹論.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569.
 133) 方賢 著. 奇效良方·瘡疹論.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552.
 134) 虞搏 編. 醫學正傳·脈法總論. 서울. 成輔社. 1986. p.387.
 135) 虞搏 編. 醫學正傳·痘疹. 서울. 成輔社. 1986. p.409.

19) 『本草綱目』

明代 李時珍이 1578년에 成書한 것으로 소아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本草綱目』에 기재된 소아과 질병을 보면 초생아 질병 101종, 時行病 57종, 소아잡병 189종, 소아 외과병 45종 등 모두 392종에 이르는 많은 양의 소아병을 수록하였다.

치료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脾虛慢驚’에 “黃芪湯, 瀉火補金益土, 爲補治之法, 用炙黃芪二錢, 人蔘一錢, 炙甘草五分, 白芍藥五分, 水一大盞, 煎半盞, 溫服”¹³⁶⁾이라 하였고, ‘小兒發熱’에 “以蔥涎入香油內, 手指蘸油摩擦小兒五心, 頭面, 項背諸處, 最能解毒涼肌”¹³⁷⁾라고 하여 手法를 운용하였고, 慢肝驚風에 “用水飛代楮石末, 每服半錢, 冬瓜仁煎湯調下, 果愈”¹³⁸⁾라 하여 독특한 치료방법을 운용한 것을 볼 수 있다.

20) 『醫學綱目』

明代 樓英이 撰했고 1565년에 간행되었다. 全書는 모두 40권이고 그 중 36~39권 4권이 小兒部에 해당하는데 小兒通治와 五臟病 등의 논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분류방법에서 本書는 계통화한 證治綱領을 위주로 소아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五臟의 항목에 귀속시켰다. 예를 들어 36권을 보면 角弓反張, 搖頭, 驚搐, 疳氣 등의 질병을 肝의 범주에 속하는 소아병으로 분류하였고, 37권 「心主熱」에서는 潮熱, 積熱, 心痛, 赤丹, 重舌, 木舌 등을 心의 범위에 속하는 소아병으로 분류하였다.

학술적인 면에서 樓英은 錢乙, 陳文中, 李東垣, 王海藏, 羅天益, 朱丹溪, 劉河間, 張潔古 등과 같은 다양한 의가들의 이론과 방제를 인용하여 병리를 천발하고 치료를 하였다. 그 중 東垣, 海藏, 羅天益과 같은 補益元氣를 중시하는 의가들의 方論이 많았다. 이 밖에 小兒外治法을 중시하여 37권에 敷貼法, 洗浴法, 塗函法, 塗腳心法 등 다양한 外治方法을 운용하였다.

21) 『赤水玄珠』

『赤水玄珠』는 明代 孫一奎가 撰한 것으로 1584년에 간행되었다.

本書는 모두 30권이고 25, 26권이 「小兒水鏡」으로 小兒雜病에 대한 專篇이며 소아 驚風과 哮喘을 비롯한 각종 소아잡병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驚은 병의 명칭이고 風은 병의 형상이다. 抽搐 증상은 風의 動함과 유사하여 驚風이라 명명하였다.”¹³⁹⁾고 하여 驚風의 명칭에 대해 정의하고, 驚風의 병인을 內·外 두 가지로 구분한 다음 이에 의거해서 “驚의 外因으로는 耳聞異聲, 目擊異物, 驚然仆地 등이 있고, 內因으로는 由痰生熱, 熱生風 등이 있다. …… 外因의 치료는 養神하고, 內因의 치료는 清降하는 것이 마땅하다.”¹⁴⁰⁾고 하여 병인의 종류와 치료법칙을 설명하였다. 또한 哮喘에 대해 “夫哮以聲響名 …… 氣高而喘, 必熱而煩, 抬其肩, 擷其項, 不能屈體而拾物, 貼席而伏枕也 …… 斯乃有餘之疾 …… 治惟調氣, 豁痰, 解表, 蓋痰出而聲自寢也. 顧喘以氣息言, 喉中無痰, 氣促不相接續, 有虛有實 …… 有補有瀉, 是故不可與哮同日而語也”¹⁴¹⁾라 하여 소아 哮喘의 증상, 감별, 치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2) 龔延賢

龔延賢의 字는 子才, 號는 雲林이고 江西 金溪人으로 明代의 저명한 의가이다.

저술로는 『萬病回春』 8卷, 『壽世保元』 10卷, 『雲林醫轍』 4卷, 『魯府禁方』 4卷, 『種杏仙方』 4卷 등이 있다. 『萬病回春』은 1587년에 成書되었고, 7권이 소아과 부분으로 驚, 疳, 痘, 麻를 비롯한 초생아 雜病과 小兒의 內, 外, 五官雜病 등이 논술되어 있다. 『壽世保元』은 1615년에 成書되었고 8권이 소아과 부분으

136)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1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698.
137)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2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421.
138)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10).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88.

139) 孫一奎 撰. 赤水玄珠全集(卷25)·明驚風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41. “驚者病之名, 風者病之象, 言其抽搐有似於風之動而爲名也”
140) 孫一奎 撰. 赤水玄珠全集(卷25)·明驚風篇.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41. “夫驚有因外因內; 外至者, 或耳聞異聲, 目擊異物, 驚然仆地者是也; 內生者, 由痰生熱, 熱生風也 …… 治外須當養神, 治內自宜清降”
141) 孫一奎 撰. 赤水玄珠全集(卷26)·哮喘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63.

로 驚, 疳, 癩, 熱 등 諸證과 初生諸疾, 五官諸疾, 內科雜病 및 痘瘡, 癩疹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龔廷賢의 소아과 학술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龔氏는 소아과 분야에서 東垣의 脾胃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소아과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소아비위의 생리적, 병리적인 면을 중시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明代 소아과의 공통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龔氏는 敷臍法과 같은 小兒外治法의 응용을 매우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小兒吐瀉에 鷄子清合綠豆粉을 膏로 만들어 臍하면 양쪽 脚心에 바르고, 瀉하면 凶門 위에 붙였다. 重舌의 치료에 百草霜, 芒硝, 滑石을 末하여 酒調하여 발랐고, 赤眼暴發腫痛에는 芒硝, 雄黃을 末로 만들어 양쪽 콧속에 붙여넣었고, 水瀉不止에는 五倍子末을 陳醋와 섞어 膏를 만들어 臍上에 붙였고, 大小便不通에는 蔥白, 生薑, 淡豆豉, 鹽을 찢어 餅子를 만들어 臍上에 붙여 치료하는 등 外治法을 다양하게 운용하였다.

23) 『景岳全書』

(1) 『景岳全書·小兒則』

『景岳全書』는 明代 張介賓이 1638년에 찬했다.

40권, 41권이 「小兒則」에 해당한다. 「小兒則」의 上卷(40권)은 總論, 初誕法, 護養法, 初生兒看病法, 脈法, 顔色, 藥餌之誤, 小兒診治大法 등이 수록되어 있고, 下卷(41권)은 小兒霍亂, 吐瀉, 五疳, 盜汗, 腹脹, 癩癩, 變蒸 등이 실려 있다. 이 밖에 62권이 「小兒則古方」이다. 자료에 나타난 張景岳의 소아학술사상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小兒變蒸說, 三關指紋說, 驚恐驚風論, 小兒辨證說 등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나타내었는데 다음과 같다.

① 小兒變蒸說

小兒變蒸說은 西晉 王叔和가 제창한 이래 큰 비판 없이 줄곧 신봉되어 왔으나 張景岳은 “대개 胎兒는 달이 차면 離懷하게 되니 氣質은 비록 충실하지 않지만 臟腑는 이미 모두 완비된 상태이다. 출생한 후에는 長養之機가 月이나 苗처럼 한시라도 쉬지 않고 움직여 …… 百骸에 이르니 시시각각으로 그 자라나는

상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 이것이 먼저이고 저것이 뒤라고 정하여 一變하면 腎이 생하고, 二變하면 膀胱이 생하는 등 32일 사이에 변화하는 기간이 정해진다는 이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¹⁴²⁾라 하였다. 또한 “무릇 違和에 속한 것은 外感이 아니고 內傷에 속한 것이다. 애초에 원인이 없는 질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찌 變蒸을 邪라 이를 수 있겠는가? 또 잘 양육된 소아들 중에는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사소한 질병이라도 없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¹⁴³⁾라고 주장하면서 小兒變蒸說 자체를 부정하였다.

② 소아진단

張景岳은 指紋診法에 반대하고 脈診을 중요하였다. 그는 “凡診小兒, 既其言語不通, 尤當以脈爲主”¹⁴⁴⁾라고 “但察其強弱緩急四者之脈, 是即小兒之肯綮”¹⁴⁵⁾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아잡병 뿐만 아니라 痘疹의 경우에도 診脈을 우선시하여 “凡看痘之法, 一見發熱即當先察其脈 …… 凡出疹自熱起至收完, 但看右手一指, 脈洪大有力, 雖有別證, 亦不爲害, 此定存亡之要法也”¹⁴⁶⁾라 하여 切診을 중시하였다.

③ 驚恐驚風說

宋代 錢乙이 驚恐으로 인해 驚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의가들은 줄곧 驚恐을 驚風의 類에 귀속시켰으나 張景岳은 “急驚慢驚, 一以爲熱, 一以脾胃之虛, 皆不必由驚而得, 而此以驚恐致因者, 本心膽受傷, 神氣陟離之病 …… 所因不同, 所病亦異”¹⁴⁷⁾라

142)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1)·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98. “蓋兒胎月足離懷, 氣質雖未成實而臟腑已皆完備, 及生之後, 是長養之機則如月如苗, 一息不容有間 …… 百骸齊到, 自當時異而日不同, 豈當有此先彼後, 如一變生腎, 二變生膀胱及每變必三十二日之理乎”

143)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1)·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98. “凡屬違和則不因外感必因內傷, 初未聞有無因而病者, 豈真變蒸之謂邪? 又見保護得宜而自生至長, 毫無疾病者不少, 抑又何也”

144)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1.

145)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1.

146)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3)·痘疹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12.

147)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3.

하고 치료에 秘旨安神丸(人蔘, 棗仁, 茯神, 半夏, 當歸, 芍藥, 桔紅, 五味子, 灸甘草) 등으로 주로 神氣를 회복시켰는데, 근본적으로 驚恐과 驚風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④ 脾腎雙補

‘陽非有餘, 眞陰不足’은 張景岳의 특징적인 학술사상이다. 이는 「小兒則」의 전반적인 내용에도 잘 나타나서 소아의 元氣와 陽精을 중시하여 脾腎을 溫補시키는 것을 치료원칙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小兒辨證에 “當審察虛實, 凡證屬有餘者, 病氣也. 不足者, 元氣. 故有餘當認爲不足, 思患預防, 斯少失矣”¹⁴⁸⁾라 하여 소아병에 허실을 불문하고 元氣를 보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아의 元氣가 많지 않은 상태를 알지 못하여 병으로 이미 傷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거듭 攻伐한다면 萎敗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¹⁴⁹⁾고 하였다. 또한 2권의 「小兒補腎論」에서는 “출생한지 얼마 안 된 소아는 비록 형체는 갖추었지만 精氣는 未治한 상태이다. …… 精은 至陰之液으로 十二臟의 生化에 근본이다.”¹⁵⁰⁾라 하여 소아 치료에 특히 腎精을 중시하였으며 “補脾가 補腎만 못하며 養陰하여 濟陽하는 것이 秘法이다.”¹⁵¹⁾고 하였다.

⑤ 용약의 특징

이상과 같은 張景岳의 학술사상을 통해 溫補脾腎을 위주로 방제를 운용하는 것이 張氏 소아과 용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吐瀉’ 치료에 “小兒吐瀉證, 虛寒者居其八九, 實熱者十中一二”¹⁵²⁾라고 하여 溫補를 중시하였

고, ‘慢驚’에 대해 “總屬脾腎虛寒之證”¹⁵³⁾이라 하여 치료에 “當專顧脾腎, 以救元氣”¹⁵⁴⁾라 하였으며, ‘臍風’에 대해서는 “若無火無痰者, 專當溫補脾腎”¹⁵⁵⁾이라 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용약에 人蔘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밖에도 本書에 열거된 古方八陣 및 新方八陣을 비롯해 「小兒則古方」에 수록된 171종의 방제들 가운데 人蔘을 위주로 한 것이 70여종에 달하고, 또한 대부분 黃芪, 當歸 등을 배오하여 補脾溫腎을 위주로 용약하였다.

(2) 『景岳全書·痘疹證』

『景岳全書』 42권은 「麻疹證」이고, 43~45권은 「痘疹證」으로 小兒痘疹에 관한 專篇이며 또한 63권 「痘疹古方」 1권이 있다.

「麻疹證」 1권에는 麻疹의 名義, 順逆, 疹脈, 疹期, 形色, 吉凶, 禁忌, 總論治法 및 喘嗽, 吐瀉 등 치료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痘疹證」은 모두 3권으로 痘證의 脈象, 形色, 吉凶, 日期, 治法, 수반증상 및 그 치료, 예후 등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痘藥正名 및 痘家禁忌 등에 관한 것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 특징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張景岳은 痘疹의 護理를 중시하여 “痘疹之證, 全在調治, 禁忌 …… 如鷄魚炙燂鹽醋五辛之類, 直過七七之後方可食之, 惟宜食淡”¹⁵⁶⁾이라 하여 특히 음식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였다. 痘疹 초기에는 “全要避風寒, 遠人物, 節飲食, 守禁忌”¹⁵⁷⁾라 하여 風寒에 노출되고 穢物에 접촉되는 것을 금하였으며 ‘痘痂既落’한 경우에는 “血氣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調護에 더욱 주의하여 沐浴이나 生冷한 음식물의 섭취, 饑飽가 적절하지 못하여 傷하는 것을 일체 禁해야 한다.”¹⁵⁸⁾고

148)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79.
 149)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79. “不知小兒元氣無多, 病已傷之而醫復伐之, 其有不萎敗者鮮矣”
 150)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2)·傳忠錄·小兒補腎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28. “小兒於初生之時, 形體雖成而精氣未裕 …… 且精以至陰之液, 本於十二臟之生化”
 151)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92. “故曰補脾不若補腎, 養陰所以濟陽, 此秘法也”
 152)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1)·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91.

153)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5.
 154)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5.
 155)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0)·小兒則.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483.
 156)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07.
 157)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證.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07.

하여 더욱 謹身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痘疹의 치료에도 元氣를 중시하여 “痘는 원래 胎毒으로 元氣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또 元氣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收斂될 수 없다. 때문에 解毒清火하려면 역시 元氣의 힘을 빌려야 한다. …… 元氣가 무력하면 淸하러 해도 淸할 수 없고, 解하러 해도 解할 수가 없게 된다.”¹⁵⁹⁾고 하여 脾胃를 溫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痘疹과 雜病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痘를 치료할 때 陰分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치료에 마땅히 滋潤해야 하고 剛燥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때문에 補脾함이 補腎하는 것만 못하며 養陰하여 濟陽하는 것이 秘法이라 할 수 있다.”¹⁶⁰⁾고 하여 소아의 眞陰不足을 근거한 의학사상을 피력하였다.

III. 結 論

明代의 의학은 宋代 및 金元代에 발달한 의학이론을 임상과 종합하고 절충시킴으로써 비교적 계통적이고 완비된 의학체계가 형성되었다. 辨證論治를 중시하는 이론적인 면과 진단, 치료, 예방을 포함한 임상적인 면이 발달하였다. 理學의 영향에 따른 의학사상이 유행하여 소아과 역시 이러한 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辨證論治 체계를 살펴보면 ‘萬全, 魯伯嗣, 王大綸, 王肯堂, 樓英’ 등의 의가들은 錢乙의 五臟辨證體系를 계승하였다. 萬全은 臟腑의 ‘三有餘四不足論’을 제창하여 五臟虛實에 따른 治則을 확립하였고, 寇平은 五臟病의 진단과 질병의 五臟分類에 대해 논했으며, 明末 王大綸은 『嬰童類萃』에서 五臟의 생리·병리적 특

징, 五行의 生克관계, 五臟虛實에 따른 主脈·病脈 등을 상세히 밝혔다. 또한 王肯堂, 樓英 등은 五臟의 證으로 질병을 분류하는 논치체계를 확립하였는데, 『幼科證治準繩』이나 『醫學綱目·小兒部』가 이러한 체계에 따랐다. 魯伯嗣도 치료용약에서 오장 치료의 강령을 세우고 각 오장병에 따른 論治大法 및 상용 방제를 전개시켰다.

小兒 辨證에서 脾胃를 중시한 것은 일찍이 錢乙과 李東垣이 주장한 것으로 明代에 이르러서는 더욱 중시되었다. 대표적인 의가로 萬全, 龔廷賢, 胡濙 등이 있다. 萬全은 『育嬰秘訣』과 『幼科發揮』 등에서 「調理脾胃」專篇을 두고 臟腑辨證論治를 기초로 소아 脾胃에 대한 것을 천발하였다. 여기에서 ‘脾常不足’하다는 생리·병리적 현상에서 출발하여 소아의 ‘發病, 治療, 護理’ 등 전반적으로 상세히 논술하였다. 龔廷賢은 『壽世保元·小兒科』와 『衛生易簡方·小兒』에서 「調理脾胃」專篇을 두고 小兒脾胃에 대한 것을 중시하여 발췌시켰다.

薛己와 張景岳은 소아의 脾胃를 중시하였고, 脾胃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元氣인 命門을 중시하였다. 薛己는 李東垣의 脾胃說을 근거로 補中益氣湯을 선용하여 脾胃를 調補하였다. 동시에 대부분의 脾胃病은 命門의 火가 衰하여 中州의 氣를 溫蒸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여 腎氣를 溫補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張景岳 또한 脾胃 모두를 補해야 한다고 하여 소아의 부족한 精氣를 보하기 위해 人蔘이나 附子 등을 선용하였다.

明代에는 醫案이 소아과의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어 이로 인해 전문적 醫案의 수량이 증가하고 醫案의 格式이 확립되는 등 의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 小兒科 醫案에 대한 專集으로는 薛己의 『保嬰撮要』가 대표적이다. 『寓意草』에는 ‘與門人議病式’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病案 형식이 완비되어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였고 여기에서 사용된 ‘與門人議病式’이 이후 明末 小兒科 病案 형식의 기본이 되었다.

이 밖에 진단분야에서는 기존의 望診과 切診이 더욱 중시되어 발전된 것 외에도 腹診과 같은 새로운 방법도 출현하였다.

158)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診.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09. “血氣未復, 極當調護, 切不可深浴及食飲生冷, 傷機過飽”

159)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診.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12. “痘本胎毒, 非藉元氣不能達, 非藉元氣不能收, 故凡欲解毒清火, 亦須藉元氣 …… 使元氣無力則淸亦不能淸, 解亦不能解”

160) 張介賓 著. 景岳全書(卷42)·痘疹診.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9. p.514. “凡治痘者, 最爲重在陰分, 宜滋潤不宜剛燥, 故曰補脾不若補腎, 養陰所以濟陽, 此秘法也”

參考文獻

「논문」

1. 朴炫局, 金基郁, 李泳錫. 兩宋時期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2). pp.1-20.
2. 朴炫局, 金基郁, 金正浩. 金元代的 小兒科學에 關한 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8. 21(1). pp.13-26.

「단행본」

1. 龔廷賢 撰. 壽世保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2. 張介賓 著. 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28, 479, 481, 482, 483, 485, 491, 492, 498, 503, 504, 507, 509, 512, 514.
3. 吳少禎 外 1人 編著. 中國兒科醫學史.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0. p.159,164, 165, 173, 174, 175, 186, 203, 208, 209, 210, 211, 213, 214. pp.208-209.
4. 秦昌遇 編著. 幼科折衷.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0. p.1, 6, 7, 14, 16.
5. 萬寧 著. 萬氏醫貫 中國醫學大成續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120, 135.
6. 薛己 撰. 薛氏醫案 文淵閣四庫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88. p.188, 238, 242, 292, 527.
7. 寇平 著. 全幼心鑒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16, 26, 29, 161.
8. 聶尚恒 撰. 活幼心法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p.598.
9. 蕭源 外 5人 編輯. 永樂大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041.
10. 孫一奎 撰.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940, 941.
11. 虞搏 編.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386, 387, 409.
12. 魯伯嗣 撰. 嬰童百問. 上海. 上海書店. 1985.
13. 萬全 著. 痘疹心法.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 85, 110.

14. 萬全 著. 育嬰秘訣.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24, 27, 69, 100, 344, 475.
15. 萬全 著. 片玉心書. 湖北省. 湖北科學技術出版社. 1985. p.3, 65, 110.
16. 甄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p.237-248.
17. 王肯堂 輯. 證治準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1, 130, 293.
18. 王鑾 撰. 幼科類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81.
19.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588, 698, 1421.
20. 萬全 著. 幼科發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63, 73, 83, 86, 91, 107, 109.
21. 周定王, 朱楠 撰. 普濟方. 서울. 翰成社. 1981. p.1, 18, 74, 291, 805, 1083, 1287. pp.53-55.
22. 方賢 著. 奇效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1439, 1552, 1566, 1569.

「기타」

1. 薛己 撰. 保嬰金鏡錄.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2. 王大綸. 嬰童類萃.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3. 汪石山 著. 痘治理辨.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簡體版)[CD-ROM]. 長沙.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7.

